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6.6

저/역/자/목/적/작/사/연/업/자

서울시 중구 장충동 33-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ID:GTY10(천리안)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정보 제공

- PC통신에 '어린이집·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시설 홍보

-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교사 알선

- 선생님을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연구 개발

-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이용

- 천리안 : GO BABY
- 하이텔 : GO BEBO
- 유니텔 : GO BEBO



본 화면은 하이텔 제공 예시입니다.

KOR 한국보육정보연구소
Korea Daycare Information Research

서울 중구 덕진동 18-27 대현문화원 426호 TEL: 02)268-3954/271-1547-8 / FAX: 02)271-1548 · ID: KIDAREE00(천리안) / PHSN01Y(천리안)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6.6



자/역/사/표/탁/악/△/연/접/표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ID: GTYID(천리안)

우리네 아이들

96.6월호

<통권 41호>



<표지사진>

5월 5일, 부모와 함께 찾은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아이는 장고를 난생 처음 쳐봤는지도 모른다. 마냥 새롭고 신기할 뿐인 세상. 그렇듯 모든 걸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이로 계속 남아주기를, 이미 소년기를 지나버린 어른들은 바랄 뿐이다.

(사진 / 이주영)

일하며 생각하며 / 3

5월을 보내면서

위양자

새날을 연 사람들 / 5

정치편을 새하얗게!

한국의 대치를 꿈꾸는 세탁소집 둘째딸

황미혜

어린이집 식단 / 11

어린이집 여름철 식단

오경민

아동관찰 / 13

영유아관찰과 교사의 연구일기를 통한 자기성찰에 대하여

윤선영

영아보육 / 28

『영아보육 활성화방안』세미나에 다녀와서

남미영

장애아보육 / 31

『장애유아를 위한 케틀라이나 교육과정』출판기념 강연에 다녀와서

최순옥

건강하게 삽시다 / 34

어린이 바른 몸 세우기의 기초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

좋은 그림책 소개 / 41

『떡잔치』

이현경

바깥놀이 / 43

수원 축산기술연구소

이주영

짜·임·새

외보 / 45

편집부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이래요!

보육정책 / 47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활성화 제안에 대한 화신

일본방문기 / 49

박정애

문명숙의 차별-「아사카지구」를 방문하고

통신이야기 / 53

강애란

자료정리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일기 / 55

편집부

우리의 무관심이 부른 또 하나의 사건

연장소식 / 57

편집부

인천지역 종물소모임 '초급발표회 및

스승의 날 자축연'을 다녀와서

육아일기 / 59

박정애

승필이는 육십꾸리기

책아소별곡 / 61

도담도담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오빠들의 목소리 / 63

보육계풍양 / 65

소식과 소식 / 67

편집부에서 / 71

1996년 6월 합본호(통권 41호)/첫발행
1992. 5. 25. / 퍼넌곳지역사회학아소
연합회/퍼넌어남미영/육은이박정애,
강애란, 황미혜/퍼넌날1996년 6월 1일

일하며 생각하며

5월을 보내면서

위양자 / 본회 부회장

이런 저런 행사로 바쁘던 가정의 달 5월이 갔다. 5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가정의 의미는 다시 회미해져 가고 아이들의 존재는 다시 잊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시 힘있고 돈 가진 어른의 입장에서 가정과 사회의 하루는 해가 뜨고 지기를 거듭하려나...

"엄마! 산이는 참 좋겠다." "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랑 자주 놀러가니까."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 아이의 말이다. 처음엔 학교에 다니는 날을 알람장에 일일이 번호를 매겨가며 오늘은 45일째라고 즐겁게 말하던 아이다. 아직 100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교직자의 날이라 쉬는 날 아침에 긴 한숨과 함께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생을 부러워하고 있다.

입학 초기엔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것이 형만의 특권처럼 느껴졌는지 따라가겠다고 떼를 쓰는 동생에게 자랑처럼 설명하곤 했었다. 그렇게 시작한 학교생활에 이젠 서서히 불만이 늘어가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불만이 바로 선생님이 반 친구들을 데리고 놀러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봄소풍이 지난 어느날 문득 "여름 캠프는 언제 갈지 엄마 알아요?" 하며 소풍에 대한 실망-두 학교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어서 맘대로 뛰지도 못할 정도였고 놀이라고는 노래자랑과 디스코 경연대회 뿐 교과서에 나온 자연관찰을 할 시간도 장소도 없었다-으로 여름에 있다는 캠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있다. 간혹 어떤 학교에서는 일련 교육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공립 학교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말로는 듣고 알던 교육의 현실이 내 아이의 한숨 섞인 말속에서 피부에 와 닿으며 방과 후 보육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올해부터 영아·장애아·방과 후 보육의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에서 실천에 옮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중 방과 후 보육은 영아나 장애아 보육과는 달리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 체계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쉽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고 있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무척 반가운 일이다. 우리 아이도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 혼자 점심을 먹고 학원에 다녀야 했던 날이 많았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가졌다.

그런데 실제로 방과 후 보육을 하고 있는 몇군데를 보면 어느 학원과 차이점이 별로 없다. 한 곳에 있어도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현실과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운영자의 입장에서 임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점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점심의 해결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혹은 아직도 급식을 안 하는 곳이 있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곳이 대부분이라-이는 어린이집의 2시 반 아이들의 귀가 후에 남은 공간을 이용하려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 아닐까-어쨌든 점심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고 여전히 열쇠를 목에 걸고 다녀야 한다.

방과 후 보육의 내용 또한, 얼마나 아이들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고 있는지 의문이다. 숙제를 봐주기도 하고 문제집을 풀기도 하고 몇가지 특별활동을 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보살핌도 중요하다. 저녁에 일이 끝나고 돌아와 씻고 저녁밥 먹고 나면 어른이 먼저 지쳐서 아이의 학교 생활을 챙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어떨까?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전업주부의 아이들 보다 시장구경을 해도 적게 하고, 아프기라도 할 때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고 마음 놓고 쉬기가 마땅찮다. 산으로 들로 구경다닐 여유 또한 없다. 물론 전업주부를 엄마로 두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맞벌이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 자식들 잘 키우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라면, 이자식들 잘 키우기 위한 일에 방과 후 보육이라는 형태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나눠지겠다면, 과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운영자나 부모의 입장보다는 먼저,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리다고는 해도 자신들의 의견을 갖고 있고 글로도 표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방과 후 보육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싶어하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아마 아이들은 우리 아이처럼 산으로 들로 쏘다니고 싶어할지도 모른다. 몸이 아픈 날은 내 집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밥 먹기를 과자 먹기보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친구들과 여럿이 둘러 앉아 밥을 먹으면 잘 먹는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에게 놀이감이 참 많다. 놀이감도 유행이 있어서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기죽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무 놀이기구도 없는 산이나 들에 나가면 아이들은 어느 누구도 기죽지 않고 뛰어 놀 수 있다. 펄펄 뛰어 다니는 아이들을 실내에만 있게 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고 운영이 잘 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 자식 잘 키우려고 하는 맞벌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눠지고, 방과 후 보육을 시작하는 어린이집들은 "우리 아이들" 키운다는 책임감으로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일년 열두달, 사시 사철 우리 아이들은 자라고 뛰어 놀고 싶어한다. 잃어버린 자연을 아이들에게 돌려 준다면, 지역사회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5월 5일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새날을 여는 사람들

정치판을 새하얗게! 한국의 대치를 꿈꾸는 세탁소집 둘째딸

황미혜 / 편집부

4월 총선이 끝나고 나자 모두들 선거 뒷이야기에 잠시 신경들을 쏟았었다. 그리고 선거때면 언제나 뒤따르는 선거부정이 연이어 신문이나 방송을 메웠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도 거의 잠잠하다.

이번 선거는 유난히도 많은 이야기가 남겨졌다.

아슬아슬한 여소야대는 결국 신한국당의 엄청난 노력(?)으로 여대야소의 정국이 되었고, 당연직처럼 여겨졌던 몇몇 현역의원들이 대거 낙선한 것과 여성후보가 그것도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는 것. 그래서 올해는 여성정계 진출이 3%라는 것이다.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에서는 그간 총선기간동안 많은 신문지상에 소개된 한 의원 당선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구명가게 둘째딸이었던 영국의 대처와 그동안의 삶이 비슷하다는,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대처가 되어 정치판을 깨끗하게 세탁하겠다고 나선 세탁소집 둘째딸, 추미애(국민회의)씨가 바로 그이다. 편집부에서는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추미애씨가 보육문제를 공약으로 거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번은 만나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선거운동기간 내내 담고 있었는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다행히도(!) 당선이 되었다니 빠른 시간내에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버이날인 5월 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보니 지역주민들이 갖가지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찾아들 와서 사무실이 복잡, 어수선하다며 동서울호텔 커피숍으로 약속 장소를 정했다. 직접 자양동에 있다는 사무실에 가서 분위기도 살펴보고 싶었지만 막상 대화를 나눌 수 없을 정도라면 아쉽기는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덕분에 차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추미애 의원은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통해 본 것처럼 깔끔한 인상을 지닌 사람이다. 대구 사투리가 살짝 배어있는 말투를 지닌 추미애 당선자는 우리가 건넨 한마디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이야기해주었고 그이의 이야기는 모두 구체적인 생활에서

나온 것들이어서인지 정치인이라는 세글자가 지닌 딱딱함을 전혀 맛볼 수 없었다. 하긴, 그이는 한양대 법학과 출신으로, 1982년 사법시험 합격한 후 1985년 3월부터 1995년 8월 31일 광주고등법원 판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약 10년 6개월을 법의를 입고 생활하다가 이제 막 금벤티를 달고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정치의 온갖 물을 먹은 기성정치인



과는 다른 분위기를 떠올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그이의 말투에서 배어나온 친절함과 당당함이 4년 뒤에도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쏟아지는 궁금증은 무척이나 많았지만 우선 지역공약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심스럽게 꺼냈다.

“생생한 지역공약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 개인이 지역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후보든지 지역공약을 내세우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선거때면 누구나가 지역을 위한 참일꾼이라고 짐 뒤통자며 떠드는 마당에 이이는 초반부터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나왔다. 자신의 지역공약은 없단다. 국회의원이 지역공약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제도적 장치도 뒷받침되지도 않거니와 국회에 가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기본활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만이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했던 선배정치인까지도 거짓말장기로 단언하는, 겁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지역의 어떤 지역사업 따내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사교적인 무대에서 영향을 발휘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은 무의미하고 따라서 내세우지도 않았다는 나름대로 근거있고 어찌보면 가장 솔직한 공약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적어도 하겠다고 거짓말은 하지 않은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첫 대목에서부터 우리는 그이의 당당함을 진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이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내세웠을까? 여기저기에 소개된 바로는 보육사업에 대해 많은 거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일단 보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리라 예상하면서 그이의 중점공약에 대해 물어보았다.

“제가 현장 정치인으로 뛰어난 마당에 제 나름대로 지향하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발부터 동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길 했었어요.”

보육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리라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이야기가 추미애 당선자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동등한 출발이라니...

“부모의 재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이 사회로부터 기본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조건자체는 우리가 성숙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경제주체가 돼서 이 사회에 나가서 예컨대 땀흘린 만큼 자기가 좀더 댓가를 받아서 부를 축적한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 자본주의사회가 희망하는 것이고...

경제주체가 될 준비단계에서는 모두가 제대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 그 기본이 보육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요, 보육에 대한 고민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된다 해도 요람에서 출발할 때까지는 제대로 새싹들을 동등하게 키워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자신이 희망하는 사회이고 그 출발이 그이는 보육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그이는 보육과 유아교육이 공교육화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사회는 힘들어지고 그것이 선행된다면 다른 제반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이야기한다.

"혹자는 제가 여자니까 유아교육, 보육에 신경쓰고 그게 마치 전부 다인 것처럼 얘기할 수가 있는데, 보육문제 하나만 해도 여성의 사회참여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고 빈곤, 소외문제도 어느 정도 거기서 걸러지게 되죠."

여성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주고 월급을 더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기초를 제대로 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분배정의 실현과도 직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유아교육, 보육을 제대로 공교육화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크고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더이상 가정이 불안해서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제를 선호하는 현상이 사라지는 사회가 된다면 여자도 자기 직업활동을 프로그가 되어 할 수 있고 거기서 승진도, 여성 자아실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이는 생각한다.

"우리가 남녀불평등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기초조건을 해결해줌으로써 가능한거지, 그냥 그게 여성한테 더 취업문을 열어준다 해서 아무리 취업하려고 하면 뭘 해요? 가다가 주저앉게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기초가 바로 그런 출발부터 동등한 사회의 개념이 확실하고 그것만 제대로 실현이 된다면 많은 숙제들이 거의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생각에서였지, 유아교육과 보육 그것 자체에만 국한해서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추미에 당선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이의 욕심과 의지를 볼 수 있었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이 사회가 보다 더 포근하고 살맛나는 세상이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국가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재정경제원과 그이는 필연적으로 많이 부딪칠 수밖에 없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이런 필자의 걱정(?)을 추의원은 시인한다. 그러면서 꺼내는 말이, 국회 상임위에서 복지위가 아닌 내무위를 신청하였다는 것이다. 복지관련 법률들이 한두개 더 바뀔다고 해서 우리나라 복지 기초가 바뀌는 건 아니라며, 오히려 행정이 서비스행정으로 가고 복지행정으로 가서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말 복지가 중요하다. 육아, 보육이 왜 중요한가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런 우리 사회 가치관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생각에서 내무위를 신청하거죠. 복지행정 차원으로 주력하려고 합니다."

추의원은 보통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비해 언뜻 보기에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대부분 환갑을 전후한 남성들이 풍채를 자랑하며 나서는 반면에 30대 후반이라는 젊은 나이로 나선 것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데다 전국구도 아닌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후보자였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연배가 있어야 세상을 알고, 또 남자가 일을 해야 똑부러지게 한다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팽배한 고정관념, 선입견으로는 무척이나 망설여지는 표를 광진구 주민들은 행사한 셈이다.

추미에 당선자는 그 유명한(!) 58년 개띠다. 10월생이니까 만으로는 37세이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생각하면 장벽처럼 느껴지고 어렵지만 그것도 아마 본인 하기 나름일거라며 그이는 "현실적으로 그런 인식의 장벽이 있는건 무시할 수 없지만 반면에 그런 현실을 잘 알아야 그것도 대처를 할 수 있는 거니까"라고 살포시 웃어 넘긴다.

그러면서 여자로서 어려운 점은 없었냐는 질문에 대뜸 제일 듣기 싫은 질문이라고 해서 질문을 던진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기도 하였다. 그이는 가장 잘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정치판에서 마치 어류시인, 어류문학자, 어류화가 그렇게 또 여성정치인으로 분류가 되어 저절로 성별분류가 되는 현실을 개탄한다.

물론 그이가 여성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문제를 외면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여성문제를 풀기를 희망하면서도 그 "여성"이기 때문에 아깍을 받고 동정을 받는다는 것,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이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는 남성의 몇배 이상으로 어렵다. 인식의 장벽도 깨야되고 현실적으로 육아, 가사부담 다 안고서 어찌 보면 가정에 피해를 입히고 본인 내면에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막상 사회에 나와도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남성의 두배 이상을 일해야 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여성이니까 동정점수를 받지 않느냐, 언론이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자주 던진다.

"물론 내가 여성이니까 자주 호기심 차원에 신문에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봤을 때 그건 나한테 득이 아니라 실이에요. 신뢰력에 금이 간다든가, 전문적으로 인식해주기보다는 여성으로 인식을 먼저 해버리면 그 자체가 나에겐 하나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는 여성이기 때문에 애로가 없다고 하면 "귀하의 그런 질문 자체가 날 어렵게 한다. 난 내가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걸 깨기 위해서 그건 내가 내면적으로 느끼는 고통인거지, 내가 어디 가서 나 여성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어렵소, 그러니 나한테 표 하나 더 주소, 이건 논리상 안맞으니까 난 오로지 다른 모든 정치인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의욕을 가지고 뛰고 있는데 왜 유독 질문자만 또 언론에서만 그렇게 보느냐"라고 되묻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자체가 거부감을 줄 수 있고 상호간에 오해와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답변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안할 수는 없어서 지금까지 그런 질문은 계속 회피해올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런 인식의 장벽을 깨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절망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미 제가 한번 시험적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가능했잖아요? 다른 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좀 도전을 해주고 이것이 확산이 된다면 차츰 인식의 장벽이 허물어지겠죠."

그렇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현실적 조건들을 다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이는 선거에 임하면서 승산이 있다고 보았던 걸까?

"특별히 나는 불리하다고 생각 안했어요. 제가 판사로서 현직활동하면서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니까 또 잘했다고 내세울 건 없지만 직분상의 책임은 어느 정도 했다고 여기고 있고, 그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똑같이 한다며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꼭 그게 여자여서 안된다는 생각은 나 스스로 갖진 않았어요."

어찌보면 참으로 대찬 여성이다. 약간의 흠집이라 여겨지는 것이 발견되도 모두들 감추려 들기에 여념이 없는 마당에 자신이 갖고 있는 약조건(현재 우리의 사회에선 젊음과 여성이란 점은 상당한 약조건인 셈이다)을 걱정하지 않았다는데에는 정말 그이가 지녔을 자신감과 패기를 엿볼 수 있었다.

"모르지, 일반 사람들은 불안했겠죠."

그랬을지 모른다.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내색을 감추고 있던 이들에게 추미애 의원은 화언을 한다.

"지역구 주민들한테 그런, '여성'이니까 뽑아줘도 불안하다 이런 모습을 절대 보일 수 없죠. 아 당당하다, 열심히 한다, 똑똑하다, 됐다 이런 분위기가 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추의원은 요새 보기 드물게 일하는 여성으로서 자녀가 셋이나 된다. 애 하나 낳고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판사생활 하면서 아이를 셋이나 키우기는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친정부모, 시부모 힘 빌리고 그것도 안 되면 파출부, 가정부... 그렇게 전전궁궁하면서 살았지요."

추의원 역시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아이들이 학원에 가기 싫다고 하면 가지 마라고

하고,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가 제대로 크는 것인지 마음속으로 불안해 하기도 하는 보통 엄마인 것이다.

그런 그이가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애들한테 특별히 주문하는 건 없어요, 제 성격이 좀 그런데, 남한테 신세지고 피해 입히는 건 아주 못봐줘요. 우리 애들한테도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는데, 그래서인지 애들이 크게 발달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추미애 당선자의 남편 서성환씨 역시 변호사이기도 한데, 현재 딸 둘에 아들 하나로 큰 애가 초등학교 3년, 막내가 올해 만 세살이다. 고만고만한 나이의 아이들이 바쁜 엄마 때문에 아쉬운 점은 없을지 내심 걱정도 하는 눈치다.

당선이 되고난 후 너무도 바쁘게 지내는 터라 서둘러 인터뷰를 마쳐야 했다.

사실인즉 한 여성잡지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어찌 보면 여성잡지에 인터뷰기사가 실리는 것이 추미애라는 사람이 의원생활을 하는데 보다 많은 지명도와 기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겠지만 굳이 우리 지략연과 인터뷰를 하기로 선택했다는 데서 내심 고맙기도 하였다.

바쁘게 다시 자양동에 있는 사무실로 돌아서는 그이와 헤어지고 나서 그이와의 대화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함께 길을 나섰던 일행과 일치를 본 사실은 상당히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더더욱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보육사업에 대한 알파한 해결책을 들고 나선 이도 아니었고, 왜 보육이 중요한지를 자신의 의정활동의 중심축으로 삼아는 이상 추미애, 그에게 4년간 기대를 걸어도 결코 밀리지 않으리란 생각이 든다.



어린이집 식단

어린이집 여름철 식단

오경민 / 영양사

복잡하고 힘든 여름날씨. 자칫 다량의 열량을 얻고 찬 음식만 먹게 될 수 있는 계절이 다가오
 었다.

서늘한 오이냉국에 상추쌈을 곁들인다면 멋진 여름철 식탁이 될듯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식단으로
 아이들의 열량을 적절히 영양사 오경민의 도움으로 식단을 작성해보았다.

12-36개월 영아 이음식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장국죽	시금치죽	콩유유죽	다진 흰살생선죽	과일죽	아채죽
2주	감자죽	미역죽	녹두죽	달걀죽	아채달걀말이	당근죽
3주	쇠고기우유국과 밥	다진 쇠고기 넣은 아채죽	연두부찜	참쌀미숫가루죽	애호박죽	장국죽
4주	흰살생선부침	프레치토스트	으른 편감자와 우유	밀치죽	당근죽	국수장국

36개월 이상 유아식단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오전	우유	두유	미숫가루	우유	두유	요플레
	점심	밥 된장찌개 오징어냉채 오이지무침 김치	보리밥 오이냉국 달걀찜 건새우볶음 김치	밥 육개장 복어찜 콩나물무침 오이소박이	수수밥 복어국 돼지고기튀김 상추겉절이 깍두기	밥 시금치원장국 달걀아채말이 호박전 김치	국수장국 도라지무침 김치
	오후	참쌀경단	타래과, 수박	편달걀, 쥬스	식빵튀김	인절미, 자두	화전
2주	오전	우유	두유	요플레	두유	미숫가루	우유
	점심	밥 두부김치국 탕수육 시금치나물 김치	차조밥 원장국 부추달걀볶음 마늘콩볶음 김치	밥 미역국 연근고기튀김 노각생채 깍두기	보리밥 김냉국 달아채조림 오이도라지생채 김치	쇠고기볶음밥 달걀파국 김치	완두콩밥 복어콩나물국 감자볶음 매추리알조림
	오후	편 옥수수	아채튀김	떡볶이	타래과	편만두	카스테라, 쥬스
3주	오전	미숫가루	우유	두유	미숫가루	우유	두유
	점심	밥 쇠고기우유국 뱅어포구이 콩조림 김치	보리밥 콩나물두부국 오징어불고기 호박전 김치	칼국수 무우생채 김치	밥 달콤탕 오징어채무침 오이무침 깍두기	짜장밥 오이냉국 김치	밥 콩나물원장국 두부조림 미역오이초무침 김치
	오후	맛살튀김	참쌀경단, 식혜	떡꼬치	식빵튀김	참쌀경단, 복숭아	감자크로켓
4주	오전	우유	미숫가루	두유	미숫가루	우유	두유
	점심	김밥 어묵국 단무지무침	밥 달걀국 돼지고기장조림 양배추쌈, 썬장 김치	콩밥 미역냉국 달걀찜 건새우마늘볶음 김치	보리밥 쇠고기미역국 생선커레튀김 콩나물무침 김치	비빔국수 달걀파국 샐러드 김치	밥 두부원장국 편콩어 꽃잎찜 김치
	오후	김치전	인절미, 수정과	군만두	편 옥수수	샌드위치, 쥬스	아채튀김

아동관찰

영유아 관찰과 교사의 연구일기를 통한 자기 성찰에 대하여

윤선영 / 베를린대학 박사과정,
호서대 보육훈련원 강사

보육교사 교육과정에 올해부터 새롭게 등장한 과목 중 하나가 영유아 관찰 및 평가이다. 처음부터 교육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했어야 할 부분이지만 이제부터라도 그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반기에 공동으로 사용되기 위한 교과서가 나오게 됨에 자못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싶다. 왜냐하면 영유아교육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교육활동 내용의 계획과 결정에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아이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유아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도대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옛보기'와 우리네 교육현실의 틈을 메우기 위한 작업으로서 '도입' 또는 '적용하기'가 우리네 현실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때로는 자신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왜 하고 있는지 심지어 본래 프로그램이 가지는 특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지나치기도 한다. 교사와 아동의 수의 비례나 민간중심의 보육현실이 초래하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그 이유로 들 수도 있겠으나 필자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모든 것의 종착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으로 이 글을 시작하고 싶다.

우리가 비교적 영유아교육프로그램 및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여기는 나라의 경우를 살펴볼 때 유의해 볼 만한 점은 바로 그 결과적 산물만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생성되는 과정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교육안이 생성되기까지는 물론 교육학자, 심리학자, 복지교육학자 등 소위 전문학자들의 노고와 정부의 지원도가 물론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나 실제적인 연구활동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이들은 바로 보육교사들이었다. 그들만이 아이들의 특성에 민감했고,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문제에 가까웠

기에 그들의 값진 경험은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최전방에서 자신들의 느낌과 생각을 아낌없이 반영시켰다. 우리들이 흔히 세계적인 '교육개혁시기'라고 보는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까지의 그 시기에 보육교사들이 수많은 날들을 아이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경험한 것들에 대하여 토론하며 고민했던 그 숨겨진 이야기가 그후로 교사들의 '직업관'을 형성하고 보수교육의 밑받침을 이루었으며, 영유아교육에 관한 저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작은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개발하게 되었고, 그러한 그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엮어져 다른 교사들에게 서로 모델링을 제시하는 자료로서 보육교사들이 즐겨 찾게 되었다. 그 내용은 항상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교사들이 겪는 좌절감,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상처받는 내용 등 보육에 관한 복지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는지를 예리하게 겨냥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결국에 상처받는 이들은 바로 어린이들이며 부모들이기 때문이다. 1990년도에 좌절로 끝나버린 독일의 보육교사 스트라이크를 옆에서 지켜보며 그 파급효과가 시사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보육교사들의 가슴 속에 웅어리져 있는 상처만큼 깊다는 것을 느꼈다.

필자는 보육교사들의 자기성찰(self-reflexion)이 영유아교육과 복지정책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를 강조하면서, 교사들이 자기성찰에서 두가지 의미있는 영유아 관찰과 교사의 일기에 대하여 권고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1. 영유아 관찰에 대하여

관찰은 교육과정의 한 구성요소로서 평가의 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따라서 교사나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관찰록은 교육내용의 계속적인 개발을 위해 진단의 일환으로 도구적 역할을 했으며, 다음 계획의 지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학교의 학생평가와는 달리 영유아의 평가는 그들의 특성에 따른 면밀한 주의력과 관심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객관성도 요구되어진다. 관찰록은 그것을 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보육시설의 과제인 상담과 예방을 수행하게 하는 적절한 기초자료가 된다. 그 예로 최근 독일의 사회적 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들 중 심각한 것이 바로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새로운 양상들 즉, 두려움, 신체적 고충(위장장애, 두통, 신체적 활동에 대한 불만족 등), 회화장애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찰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즈음에 와서 더욱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유아원에서의 적응문제에도 교사들이 처음 한달가량, 새로 온 유아의 반응을 기록으로 남기며 그것을 토대로 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아동의 문제를 청소년의 문제로 묶어 학교에서 주로 관여했던 것이 이제는 보육시설에까지 확산시키고 있음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성이 크다고 하겠다.

관찰이 모든 교육활동에 기본이 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기 쉬우나, 실제로 대

부분의 교사들이 자신들의 관심과 의도에 따라 활동을 하며, 우연한 관찰에 의한 것에 고정적인 판단을 하기가 쉬운 것은 독일의 보육교사들에게도 자주 거론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관찰이 보수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과제이기도 하다. 다음에 관찰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7. 관찰의 개념

관찰이란 능동적이고 계획적이고 특정한 목표를 향한 목적있는, 무엇보다도 특별한 상황이나 여건에 의존한 행동이나 사건을 관심있게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성급하게 무엇인가 가치를 평가하거나, 해석·판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예: "예민한" 아이-행위가 이미 결정됨)과 서술이 적당하다는 것이다(예: 어린이 X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다른 아이가 요구할 때마다 주기 위한 방법으로 바닥에 집어 던진다. 어린이 X는 자신이 직접 선정한 과제를 해내지 못할 때면 곧 울기 시작한다).

즉 관찰은 사실의 확인으로서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다. 판정은 사실을 해석(예: 소외자, 잊기를 잘 하는, 사립성 있는)하는 것이고, 관찰결과가 된다. 그러나 교사가 관찰 중 서술할 때 판정을 멀리 해야만 진정으로 어린이 지향적인 사건과 상황을 파악하게 되며, 교사 중심적 해석의 결과에 의한 프로젝트나 다른 교육적 활동을 결정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분리'는 유감스럽게도 교사들에게 무척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관찰은 항상 어떤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생각을 자극하기 때문이다(예: 어린이 X는 놀이방 벽에 기대어 서서 고개를 한쪽으로 쏠리게 한 채 다른 아이들을 보고 있다-관찰, 그가 혼자 있는 것과 고개를 한쪽으로 떨구고 있는 것은 슬프다는 것을 연상하게 한다-판정으로서의 추측, 다른 경우: 집중적으로 관찰하느라, 너무 시끄럽다는 의미로, 또는 배에서 꼬르륵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런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

8. 관찰의 규칙

교사들이 특별한 아이의 특별한 행위방법이나 특정한 행동범주(예: 운동, 언어, 사회성, 정서, 관심이나 사고능력, 놀이방법, 자율성)에 속한다고 생각이 모아지거나, 그룹 안에서의 특징(예: 그룹구조 안에서의 어린이들의 심정, 원아들 간의 관계유형)이 드러나게 되면, 관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에 따른다.

- 어느 어린이를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관찰할 것인가?
- 정확히 무엇을 관찰하고 싶은가?(예: 자연스런 행위, 다른 사람의 특별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반응)

- 어떻게 관찰을 해나갈 것인가?(기술적인 포착의 유형)
- 왜 나는 관찰을 하고 싶은가?(예: 어떤 행동이 아이들을 방해한다.)
- 합의점과 차이점을 알기 위해 누구와 함께 관찰할 수 있을까?(실습자와 함께)
- 관찰은 (관찰록과 함께) 잘 준비되었는가?
- 목표가 분명한가?
- 내 자신의 상태는 관찰하기에 적당한가?
- 관찰하는 상황과 함께 참고해야 할 것들(배경)은 결정했는가?

9. 관찰기록문의 양식을 위한 예

16절지를 기준으로 위의 1/3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항목이 들어간다.

관찰기록문의 번호: _____

날짜: _____

시간: _____시부터 _____시까지

관찰의 목표: _____

어린이 이름: _____

관찰자(들)의 이름: _____

그들의 일반적 분위기: _____

나머지 2/3 부분에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다.

a) 아직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이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일반적)그룹생활의 과정	어린이 관찰	특기할 사항

b) 특별한 상황(예: 갈등상황) 또는 무엇을 요구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있어 어린이 행동방법을 관찰하는 경우:

특별한 상황	어린이의 행동방법	특기할 사항

c) 행위범주(언어/대화장애, 친구관계)에 속하는 특별한 행동을 관찰하는 경우 :

행동방법	행동방법의 구체적 사항	특기할 사항

d) 특별한 행위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를 관찰할 경우(자기생각의 표현, 놀이 파트너 찾기, 두려움의 표현 등) :

행위(1)	빈도(빈칸으로 표시)
행위(2)	
행위(3)	
기타	

목표설정과 질문의 설정은 관찰의 결과를 도와준다. 어린이 행동의 정확한 관찰은 보다 명확한 판단을 얻게 하여, 특별한 재능과 잠재능력을 발견하게 하고 발달의 장애나 기형을 예방하거나 지지하고, 유아기적 특성과 사회화에 의한 행동장애들을 파악하게 하고, 아동 개개인의 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하고, 다음 프로젝트의 목표설정과 계획을 용이하게 하며, 제도적인 여건과 아동의 특별한 행동과의 관계를 볼 수 있고, 부모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되거나 교사회의를 위한 자료가 된다. 관찰은 대화(인터뷰)나 실험조사와 함께 또 하나의 간과해서는 안 될 모든 교육연구활동의 기초이며 일부라 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관찰이 특히 현실적인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행위분야(예: 언어, 운동, 감성 etc.)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얻는데 매우 용이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관찰(관찰기록문 양식 b, c, d)에 앞서 항상 비체계적인 관찰(관찰기록문 양식 a)이 이루어져야, 그들로부터 특정한 관찰의 카테고리(언어분야를 예로 든다면, 언어구사시의 어려움, 언어구사를 위한 준비성, 발음...)를 이끌어 내어 결정할 수 있고, 관찰계획과 의도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알맞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

- 관찰의 대상은 현시적이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오늘 관찰된 것은 오늘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알아야 다음의 것을 인지하는데 지장이 없다.
- 관찰은 어린이의 결함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동양식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다시 앞으로의 발달추진에 기여해야 할 근거가 된다.

2. 자기(교사)관찰과 타의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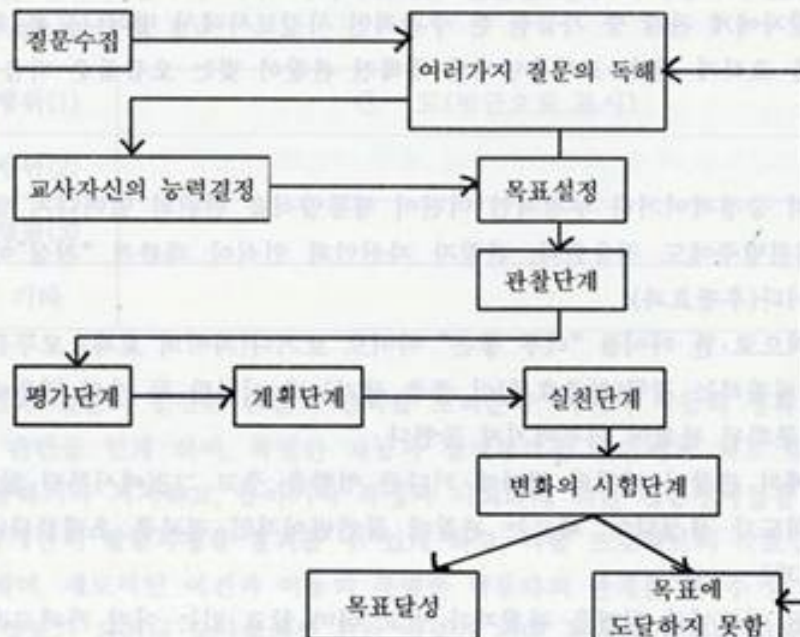
교사는 관찰자로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주관적인 자세, 의견, 설득력이 항상 관찰에 영향을 미치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주관성이 어린이의 변화과정을 규정짓게 한다. 대개는 공공연하지 않고 숨겨진 채 이루어진다. Communication은 어린이와 교사간의 긴밀한 관계를 결정지어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린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상호교환적인 영향은 감정, 사고, 행위를 규정하는 하루의 짜여진 일정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듯 관찰과 대화는 주관적인 관계의 형태로서 서로간의 행위를 결정지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찰자에게 관찰 중 가능한 한 주관적인 사실묘사에서 벗어나도록 최대한의 의식적인 노력을 요하게 된다. 교사측면에서 행해진 관찰이 빛는 오류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된다. :

- 특별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린이 행동양식을 빈번히 일어나지 않는 다른 행위범주에도 적용한다. 관찰자 자신만의 인식이 객관적 "진실"이 되는 경우이다(후광효과).
- 일반적으로 한 아이를 "너무 좋은" 아이로 보거나(자비의 효과) 모두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경향(엄중효과)이 종종 생기는데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는 거의 세분화된 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 첫번째의 관찰이 전체의 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그것에서부터 앞으로의 관찰의도가 생성되어, 때로는 관찰에 돌연변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제일주의 효과).
- 관찰된 어린이의 일면을 관찰자가 믿고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한다(유형화).
- 너무 빨리 결론에 도달하여 관찰된 행위가 단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예: 어린이 X가 다시 바지에 그냥 쉬를 하니 분명 집에 무슨 일이 있음이 틀림없다-매일논리의 효과).
- 어린이의 순간적 행동을 "지속적인 특성"인 것으로 여긴다. 교사가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질수록 어린이는 이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과 실제로 특정한 행동양식이 더욱 강화되거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잊혀진 상태이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찰작업을 미리 잘 준비하고 검토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고, 인식된 것은 검토해보며, 작업을 넓혀가기 위해 교사는 자기경험과 연속/보수교육, 교사회의, Supervision을 충분히 이용, 매일매일의 계속적인 활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한다. 자기가 관찰한 것은 항상 다른 사람 앞에 언제든지 놓여져, 모든 관찰단계과정에 지속적인 동반자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관찰과 프로젝트의 계획

관찰은 직접적으로 교육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경우들 이란, 교사들 간의 관계개선, 교사 자신의 행위변화, 공간여건의 변화(공간구성의 변화, 놀이자료의 변화, 새로운 그룹의 구조조성 등), 또는 생활의 내용적인 변화(이른 아침식 사, 자유놀이시간의 증가, "학교준비활동"의 의식적인 축소, 부모들과 함께하는 공동협력 작업 등)가 있다. 일반적으로 관찰작업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2. 교사의 일기

일기라는 말에서 우리들이 갖는 인상은 유감스럽게도 대단히 부정적일 수 있다. 왜냐 하면, 학교교육을 거치면서 항상 매일매일의 '과제물'로 거의 강제로 행해졌던 경험 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일기를 씌우로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오히려 본래의 풍 요로움을 삭막하게 변형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가 도입하는 일기의 필요성 은 바로 교사의 개인적인 연구를 위한 목적에 있다. 관찰이 극히 객관적이고 아동 중심 적이라면, 일기는 그와는 정반대로 극히 주관적이고 교사 중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일기 는 교육기관의 평가 또는 영유아의 진단이 자못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틈새를 메꾸어 줄 수 있으므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연구일기는 객관적인 관찰록 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관찰보다 포괄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영유아보육시설 에 있는 유아들의 사회성 또는 인지능력을 진단하고자 할 때에 단순히 유아들에게서 나

타날 수 있는 현상들만을 평가한다면, 당연히 그 배후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질적인 조사가 제외된다. 교사가 처한 상황이나 특성, 개인적인 철학, 직 업관은 교사의 활동영역에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사회적 공동책임이라는 의미를 이끌어 내어 교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며, 기존에 있는 교육활동 내용을 이행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 라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능동적인 주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부모를 포함한 사회와 영유아교육의 전문가 및 아동복지학자들, 관련행정부처, 보수교 육기관은 보육교사가 왜 실외활동보다 실내활동을 선택하는지, 어린이집을 유치원처럼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지, 또는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좋은 교육적 에피소드를 만들어 내는지 등등의 이유를 그 영향력과 관련하여 인 식해야 한다. 그것은 이유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출발한 다음 단계 가 중요한 발전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일 기는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맥락으로 결합되어질 수밖에 없는 교사와 유아들 간의 '현실적인 관계'에 보다 신중성을 가해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다음에 교사들의 일기가 연구과정의 동반자로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다.

7. 왜 일기를 쓰는가?

'연구일기(Forschungs tagebuch)'는 그간 수행되었던 예시연구(Aktionsforschung) 중 특히 실천연구(Fallstudies)에서 관찰, 기억되는 사실의 기록, 생각들, 계획 등을 적어두는 것으로서 근래에 와서 점차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연구하는 교사의 일기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일기쓰기는 교사들이 행하는 '매일매일의 숙련된 일'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서, 다른 연구방법이 갖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예컨대 제삼자에 의한 인터뷰 보다 더욱 간단하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 연구일기에도 다른 연구방법에서 얻을 수 있는 수집자료도 적어넣을 수 있 다. 즉, '비체계적인 관찰'에 의한 메모나 여건에 대한 묘사와 그에 대한 대화 내용도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짧은 기억기록이나 생각도 연구의 대상으로 규칙적으로 포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속성'은 연구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일기는 교사자신의 연구과정 또는 발달과정의 동반자로서 연구 및 변화행위들을 나타냄으로써 생각이나 관점의 변화를 시기에 따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여기에서 교사 스스로는 연구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일기는 연구의 기록적 반영(schriftliche Reflexion)이 되는 것이다.
- 작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모으고 메모하는 것은 점차 시간이 갈수록 중요한

자료가 되는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전에 분석했던 결과가 후에 이어질 연구의 발달을 위해 또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간결과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ㄴ. 일기를 쓰는 방법에 대하여

여기에서는 실제로 어느 학교 교사들이 연구하며 실행했던 것을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연구한다(1994).” 라는 책에서 권고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내용에 있어서 보육시설의 교사가 쓰는 일기의 방법에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한다.

- ① 일기쓰기는 개인적인 것으로서 그 어느 누구라도 일기를 쓰는 동안 유용성 있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전시킬 수 있다.
- ② 일기는 연구되어질 질문에 따라 비교적 규칙적으로 써져야 한다. 가능하면 일기 쓰는 시간은 어떤 새로운 활동방법을 시도해 보았다거나, 어려운 과제를 마쳤을 때 바로 선택한다든지, 미리 계획에 넣어두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기쓰는 날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어 규칙적인 기록을 남기며, 특별한 사건이나 모습을 그때 그때 담아두는 불규칙적인 기록으로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③ 이러한 연구를 위한 일기를 처음 쓰는 이는 물론 귀찮다거나 일기와 씨름을 할 정도로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록의 질과 속도가 자연히 높아져 갈 것이다. 우리(교사들)가 사용한 방법으로서, 연구파트너와 함께 작업을 했을 때 일기쓰기가 종종 쉽게 느껴졌다. 연구파트너(주로 전문가 또는 보수교육자)에게 우리가 작성한 기록을 읽어주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그것은 일기가 사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크게 어긋나는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것 중 어떤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가는 일기를 작성한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프로젝트나 보수교육에서도 강조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공개한다는 부담감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압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다 말했으니 이제 당신도 해보시오!”)
- ⑤ 이러한 사적인 특성에서 오는 부담은 기술할 때 문학적 및 철학적인 기준을 엄두에 두지 않으면 비교적 가벼워진다. 잘 쓰려하는 것은 생각의 흐름을 쫓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필요하다면, 즉 자신의 연구활동에 대한 경험을 출판(또는 공개)할 때 후에라도 언제든지 교정할 수 있다.
- ⑥ 우리는 우리들의 일기쓰기를 위해 40장이나 되는 두꺼운 공책을 사용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우리들의 공책이 예뻐짐을 발견했다. 종이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공책은 자기 나름대로의 유형을 만들기에 적절했다. 어떤 연구자는 간단한 메모를 분홍색 종이에 적어두었다가 관점에 따라 일기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도 했다. 한 1학년 교사는 새로운 수업방법을 시도할 때마다 일기로 메모해 둔 것은 분홍색 종

이로, 수업준비를 위해 작성한 것은 흰색 종으로 각각 사이사이에 찢히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럼으로써 계획과 실행한 경험이 관련성 있게 일목요연한 모습을 띄기도 했다. 각자에게 유용한 유형은 만들기 나름이다.

- ⑦ 우리는 공책 한 부분을 비워(또는 한쪽에 칸이 쳐져 있는 공책을 사서 사용할 수 있음) 변화와 보충할 요목을 위해 또는 다른 날에 작성된 내용과 관계가 있을 때 사용하였다. 무엇보다도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고도 분류되어 분석해 볼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이러한 요목은 다시 구체적인 예를 보여줄 수 있게 하는데 유용했다. 분석적인 주와 표기는 연필이나 다른 색깔의 펜을 사용하기도 했다.
- ⑧ 모든 기록은 날짜(밑에는 유사한 일이 일어난 다른 날짜도 기입), 장소, 반, 조사를 위한 대상과 요목들 등의 항목을 제시해야 한다. 이들이 같은 유형으로 도식화되면 빠르게 내용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 ⑨ 방향포착과 자료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또한 칸 띄우기, 제목, 초제목 등은 기록된 내용의 구조를 두드러지게 한다. 번호를 매기는 것도 실용적이다.
- ⑩ 첫쪽에나 맨 끝쪽에는 목차를 마련해 후에 언제든지 특정한 자료를 찾기 용이하게 하며, 이를 위해 각 쪽에는 쪽 표기를 해 두는 것이 좋다.
- ⑪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후에 이루어질 재구성을 위해 관찰, 감정, 반응, 표현, 재조명, 또는 상황, 예측, 가설, 설명들을 모두 기입해 두는 것이 좋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관찰과 반응을 포함하는 “기억기록”의 유형일 것이다. 일기 공책 속에는 연구과정과 관련성 있는 생각(출퇴근 길에서 적어놓는 메모), 사진들, 그림, 어떤 조사기록의 복사본, 아동의 작품 등이 삽입될 수 있다. 종종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에서 이러한 일기가 직접 인용되기도 한다.
- ⑫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기는 물론 작성자에 따라 여러 성격을 띄기도 한다. 이것은 일상적인 우리의 문제거리로 논란되어지는 것과 일치하나, 때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한다. 교사들은 관찰과 그에 대한 의견표현 사이에서 종종 정확한 관찰을 소홀히 할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일기의 부분 부분마다 관찰에 의한 것인지, 그에 대한 해석인지를 명확히 표기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⑬ 연구일기는 대부분 가끔씩의 중간 분석을 권고한다. 그것은 관찰과 해석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연구의 질문 중 어떤 것이 이미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떤 조사가 더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처음의 질문이 구체화되거나, 변형되고 또는 전혀 새롭게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다음 연구 및 변화단계의 계획이 근거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연구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수많은 조사결과에 파묻혀 버리는 일을 예방해 주기도 한다.
- ⑭ 연구파트너 또는 동료 교사에게 자신의 일기를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과정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험을 서로 이야기한다든지, 정확한 여건에 대한 문의 등은 참가자들에게 교육적 상황의 섬세한 구조에 대한 관점을 전달하게 된다. 이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배경에 대한 공론이 항상 다시 관찰에서 재확인될 때 이루어

지는 것이다.

- ⑮ 마지막으로 일기는 많은 일목요연한 상황표현과 기록들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예들의 채색장을 이루며, 교육적 실상이 기술적인 작업에 의해 쉽게 뚜렷해질 수 있게 한다. 보수교육과정에서나 교사회의에서는 그러한 예들이 자료로 제시될 수 있으며, 참석자들이 자주적이고 체험에 가까운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 중간분석의 사례

<교사현장보고서>

주제 : 우리 반의 자유놀이 시간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놀이중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이 나의 역할과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 시설에 대하여 :

우리 어린이 기관은 부모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로서, 서로 독립적으로 조직된 두 개의 영아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반에는 일곱명의 어린이들과 한명의 교사, 그리고 두명의 실습생들이 있다. 두반은 상점으로 된 공간을 포함한 한 집을 똑같이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우리 반의 이름은 '작은 방랑자들'이다. 일곱명의 어린이들의 이름과 나이는 프란치스카(2년 11개월), 마티스(2년 3개월), 크리스티나(2년 3개월), 인자(1년 11개월), 카를리네(1년 7개월), 말테(1년 5개월), 그리고 지난 8월에 새로 들어온 마리우스(7개월)가 있다. 그리고 실습생인 수산네(20세)와 시모네(16세)가 지난 8월부터 우리 반을 도와주고 있다.

처음에는 무척 어려움도 많았으나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하여 정상적인 하루일과를 시작하게 되었다.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공간구성에 대하여 짧게 소개하겠다.

우리 반의 방의 크기는 40m²이다. 길게 뻗어 있는 방의 모양은 두개로 나누어 사용하기 용이했다. 오른쪽 부분은 주로 조작놀이, 책상에서 하는 놀이 그리고 독서를 위하여 사용되고, 왼쪽 부분은 스폰지바닥에 있는 흔들이, 미끄럼틀과 사다리벽, 그리고 소꿉놀이 집이 놓여져 있다. 왼쪽 부분에서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기도 하고 역할놀이도 할 수 있다. 두 부분은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입문을 가운데로 하여, 단지 보기에 나뉘어진 듯 사용하는 것이다. 방의 공간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서로 방해받지 않고 작은 그룹을 형성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또한 전체의 공간을 하나의 놀이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 반 앞에는 12m² 크기의 다용도방이 있다. 그곳에는 어린이가 원할 때 잠잘 수 있는 세계의 침대가 있는데, 보통때에는 집중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놀이나 아주 어린 아기들에 의해 망가뜨려지기 쉬운 놀이(기차선로놀이)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내 책상이 놓여져 '사무실'로서도 사용된다.

부엌과 목욕실은 일반과 함께 사용한다. 부엌은 무척 커서 싱크대와 함께 2.2m의 긴 탁자와 여덟개의 어린이 의자, 몇개의 어른의자가 있다. PVC로 된 바닥은 물감으로 하는 놀이에도 적당하다.

우리 시설은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길가에 놓여져 있다. 집 뒷편에는 포장된 뒷마당과 주차길이 주변과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어린이들과 함께 마음놓고 놀 수 있다.

두개의 놀이터와 커다란 잔디밭, 오리가 있는 호수를 가진 공원이 어린이들의 속도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여건은 놀이에 충분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적당한 시간에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면 된다. 바로 이 점이 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즉, 어린이들의 욕구를 정확히 관찰하고, 그들이 특정한 행동양식으로 표현하기 원하는 것을 알아내며,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한 나의 가능성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우리 반의 자유놀이 시간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놀이 중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나의 역할과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반 어린이들은 (교사들의 관찰에 의하면) 요즘 소그룹으로 놀이를 하거나 혼자서 놀기를 좋아한다. 어린이들 스스로 전체가 함께 하는 놀이는 아직 눈에 띄지 않았다. 그 이유를 나는 연령에 따른 관심의 차이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나는 하루일과중 어린이들의 놀이를 다음의 질문을 알아내기 위해 관찰하였다.

- 누구와 함께 노는가.
- 왜 이들은 함께 노는가.
- 누가 놀이로부터 소외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요즈음 무엇을 어린이들이 즐겨 하는가.

관찰의 결과로 나는 나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즉 그들의 그룹형성에 영향을 주거나(소외된 어린이를 통합시키거나, 이러한 어린이들이 방해받지 않고 놀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들에게 새로운 놀이를 자극하는 것 등이다. 적목놀이 때 소외되는 어린이에게 벽돌 하나를 손에 쥐어주어 탑 쌓는데 일부를 담당하게 하기도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물론 교육적인 근거를 엄두에 두고 있다. 나는 어떤 특정한 목

표에 도달을 유도하는 부분적인 놀이의 인도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놀이 인도자의 기능은 겉으로 내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종종 어린이들에게 내가 단지 놀이파트너로 여겨지게 한다.

놀이 인도자로서의 뚜렷한 역할은 규칙을 내포한 놀이에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놀이를 완수하려면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예 : 게임).

어린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게 되면, 나는 '도우미'가 되고 나의 행동을 자제한다. 예를 들어 역할놀이에서 인형의 옷을 입히거나 벗기고, 기저귀를 갈고 또는 스펀지로 된 쿠션으로 집이나 터널, 탑을 만들 때 어린이들은 나에게 시범으로 해 보여주길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놀이에서 나의 역할은 자주 변한다. 내가 갑자기 방문객이 되거나 어린이들이 차린 (소꿉놀이) 밥상을 받을 때, 또는 터널 끝에서 시끄럽게 짖어대는 다른 개들(어린이들)의 친구 개가 될 때 나는 놀이의 '참가자'가 된다.

불행히도 나는 내가 놀이를 망치는 자가 될 때도 가끔 발견한다. 이 역할이 나에게 대부분 어려움으로 느껴지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지 내가 너무 조직적인 면에 신경을 쏟는 이유에서이다. 나는 요즈음 매일같이 이러한 경험을 하는데, 한 소그룹과 함께 놀이를 하던 중 내가 방해해야 했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 새로 온 실습생이 몇몇 어린이들과 아직 익숙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어린이들간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또는 마리우스가 왜 불만족스러워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채지 못했을 때)
 - 2) 아침에 등원하는 시간이나 오후에 부모들이 데리러 오는 시간에 부모들로부터 아주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질문공세를 받을 때,
 - 3) 전화가 걸려와 활동을 방해할 때,
 - 4)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놀이를 중단해야만 할 때,
 - 5) 또는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놀이를 방해하게 된다. 단지 계획되어지고 부동적으로 짜여진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 이러한 진단이 초래되는 어려운 점은 어린이들의 연령이 아직 금방 시작한 놀이를 잠시 후에 다시 계속할 수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내가 놀이의 인도자가 되는 상황에서는 더우기 나의 중단으로 놀이가 저해된 것이 항상 다시 계속 할 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나 사이에 종종 불쾌한 감정이 생기곤 했다.

다음주부터 나는 이러한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해 무엇인가 시도해 보기로 하였다. 두 실습생들도 몇 주 후면 좀더 긴밀하고 좀더 자주 어린이들에게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일에 신뢰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상관이 아니라 파트너같은 관계로 인도적인 작업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2)번에 관련지어 나는 부모들과 함께 나의 관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반 상황이 허락할 때만 대화를 나누기로 합의를 보았

다. 또한 나는 정보(Information)나 소식이 있을 때만 부모들을 자극할 것이고 실습생들에게도 말을 건네기로 하였다. 전화는 어떤 결과적인 필요성에 의해서나, 만일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이 허락하거나 급한 경우에만 받기로 하였다. 이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장애요소를 많이 줄일 수 있겠으나, 그래도 안전에 대한 노파심은 여전히 내가 '놀이를 망치는 자'가 되게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정확히 살펴보고 목표가 정해진 관찰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발달상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아마도 그동안 다른 어린이들에게 다시 많은 신뢰를 할 것이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놀이에 즐거움을 만끽하게 할 것이다.

내가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게 되는 놀이 이외에, 특히 자유롭게 뛰어 놀기에서 나는 무척 움츠러 들어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오히려 즐겁고 같이 뛰고 싶다는 생각은 거의 없다. 나는 이러한 뛰는 놀이시간을 내가 일하는 6, 5시간 중 가끔 필요한 숨 돌릴 시간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 이외에 이 놀이는 내 자신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만 즐겁게 느껴진다. 뛰는 놀이야말로 어린이들이 어른의 도움 없이 소그룹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놀이이기도 하다. 이같은 특성을 가진 놀이는 아이들에게 그냥 맡겨두고 싶다.

이 모든 논증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지금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묻고 싶다:

- 나는 어른으로서 뛰며 노는 것을 잊어버렸는가?
- 어린이들에게 이 놀이의 놀이파트너가 되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하는가?
-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놀이영역으로 놓아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다음주부터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세명의 '커다란'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스폰지메트에서 뛰면서 수산네(실습생)에게 다음과 같이 프란치스카에게 나는 웃으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저리 비키세요. 선생님은 방해만 해요!"

* 이 글은 독일의 어느 부모들이 설립한 한 Kinderladen의 보육교사가 보수교육과정 중 쓴 보고서이다.

4. 관찰록과 교사의 일기와 보수교육의 관계

관찰이나 일기는 많은 일로 힘겨워하는 교사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가능성

을 많이 부여하는 장점을 지녔음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유아교육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을 매일매일 아동과 함께 하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적용하는 벅찬 하루에서 같은 시간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양적인 것에서 질적이고 창의적인 '우리네 아이들'에게 적합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교사의 자기성찰이란 말의 어감이 주는 것이 자못 모든 결과적 현상을 교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점은 교사에 의한 자기성찰이 주는 효과와 의미의 중요성에 있다. 특히 학교교육에서 유래한 '수업'이라는 개념에 한정시키는 협소한 범위에서 관찰과 교사의 일기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사고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포괄적인 사고가 우선되어야 함은 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결론적으로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몇가지를 요점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관찰이나 교사의 연구일기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보육교사들이 연구를 행하는 주체로서 스스로 현실적인 대안을 내기 위해서는 각 항목마다 면밀한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 관찰록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연구
- 현재 수행되고 있는 교사의 일지를 연구일기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 연구일기의 유형을 위한 교사들의 실험적 시도
- 이것을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성찰
- 관찰록과 교사의 연구일기를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문제
- 보수교육안이 보육교사들에 의해 짜여질 수 있는 가능성 여부(예: 중간분석에 의한 특수분야-전래동요, 국악, 혼합연령을 위한 놀이나 게임, 교통교육 등)에 대한 요구 반영
- 각 영유아보육기관의 유형에 따른 독자적 프로그램 개발에 교사들의 직접적 참여
- 보수교육 및 연구파트너로서 장학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에 대한 대안
- 이밖에 다른 항목에 대하여 각자 생각해 봅시다.

영아보육

『영아보육 활성화방안』세미나에 다녀와서

남미영 / 본회 회장, 새터어린이집

5월 2일(목) 의료보험관리공단 대강당에서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주최의 '96 춘계 영유아보육세미나가 『영아보육 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영아보육정책과 보육프로그램이 실제 보육현장에서 실시될 때 여러가지 문제들을 수반하고 있어 이를 제검토하고 바람직한 영아보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서울시 보육시설연합회 민병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두가지 주제로 가지고 진행되었다.

제1주제인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이소희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서울시 가정복지국 김봉환보육계장과 선봉어린이집 강달금원장, 수원여전 사회복지과 안향림교수가 토론하였다.

주제발표에서는 우선 전반적인 보육수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개년간 약 1조3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7,590개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427만명의 아동을 추가 보육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데 56.4% 수준으로 계획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계획 자체만으로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즉, 성급한 시설확충으로 보육의 질적수준 저하와 형평에 어긋난 재정보조 및 비용정수 때문에 오히려 존재하고 있는 시설마저 자진 폐쇄하는 기현상을 초래할 가능성만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정책도 '97년부터는 870개소 기존시설의 보수와 영아시설의 확충에 따른 120개소의 설치로 '완전보육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민선시장이 펼치는 시정3개년 계획에서 밝히고 있으나 3년만에 완전보육체계로 진입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연령별 보육의 형태에서 부모, 아동,

보육교사, 시설장 모두에게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상당수준 야기시키는 것은 영아보육인데, 영아보육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시설과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이며 따라서 영아보육이 안고 있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영아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과 영양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과 영아의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유아기에 대비한 학습준비도를 성취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교사의 보육에 의해 기대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즉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의 설치와 함께 막대한 재정투자가 요구되는데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재훈련의 기회가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립시설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아반에 대한 지원이 민간시설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민간보육시설의 교사가 국공립보육교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해소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적어도 동일직종의 동일임금 적용논리에 따른다면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시설 교사의 인건비는 동일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자들은 영아보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동의하고 보다 현실성있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더 강조했으며 특히 김봉환 보육계장은 영아보육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검토할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영아나 장애아동 등 특정부문에서는 사보육을 공보육으로의 전환도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영아나 장애아동 보육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2주제는 「영아보육프로그램 활성화방안」에 대해 성대 아동학과 이영석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자로는 한양대 가정관리학과 이정숙교수와 천마어린이집의 황영자원장이 참석하였다.

2주제 발표에서는 영아보육에 대해서도 질적인 요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영아의 발달수준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보육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또한 1996년의 보육예산 중 보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책정된 예산의 비율을 보면 전체의 0.01%에 머물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의 투자



가 선결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후시간에는 새싹어린이집의 영아보육에 대한 사례발표와 종합토론의 시간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영아보육을 하는데 있어서의 여러가지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임이 이야기되었고 보다 근본적으로 영아보육뿐 아니라 보육시설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장들의 목소리를 통해 운영의 어려움과 보육의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주최가 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인 만큼 참여한 사람들이나 주제발표의 초점이 국공립시설에 기조가 맞추어져 있었음이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그래도 민간시설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특히 민간시설의 보육교사도 국공립시설의 교사와 동일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발제자의 발제는 무척 공감이가고 반가운 내용이었다.

우리가 그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피부로 절감하였던 보육교사들의 문제가 이제는 연구자들의 목소리로가 아닌 교사들의 고백을 통해 드러날 때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와 실천의 내용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장애아보육

『장애유아를 위한 캐롤라이나 교육과정』 출판기념 강연에 다녀와서

최순옥 / 본회 교육부장

지난 4월 28일 강동사회복지개발원에서 뜻있는 강연이 있었다. 대한사회복지법인 주최로 장애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어린이집에서 장애유아를 통합보육한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지탁연으로 온 강연 초대장을 받고 문득 몇년 전의 일이 떠올랐다.

5년 전 내가 근무했던 어린이집에는 지은이라는 여섯살 난 자폐증세를 보이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오전에 특수교육을 받고 오후에 어린이집에 오곤 했는데 나는 그 당시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데다, 자폐증세를 보이는 아이를 처음 보았던지라 그 아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찢찢매었다. 텔레비전에서 들었던 광고 문구를 쉬임없이 중얼거리고 위험한 일을 할까봐 막을라 치면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나게 센 힘으로 뿌리치곤 했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일이란 그저 지켜보거나 다치지 않게 해주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먹물 것을 주어 진정시키는 정도였다.

그 아이를 보면서 겪었던 또 다른 어려움은 그 아이 하나에 한 명의 교사가 완전히 달라붙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교사 셋이 하루일과를 각자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한 교사의 일손이 고스란히 한 아이에게 집중됨으로 인해 오는 다른 교사와 다른 아이들의 부담도 무시하지 못할 일이었다. 그렇다고 아이를 받을 수 없다고 하기에는 아이도 아이러니와 지은이 엄마에게도 못할 것이었다. 아이에게 특수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미싱일을 받아 하던 지은이 엄마는 어린이집에 지은이가 오는 시간이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 일을 해야 특수교육에 들어가는 교육비를 벌 수 있었던 것이다. 특수교육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교사들은 그 교육이 수년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감히 그 아이에게 나름대로 특별한 교육을 시킨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다행히 근처의 지탁연 소속 어린이집에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오게 되어 아이가 그 곳에 다니게 되었지만 그로부터 1년 쯤 지난 뒤, 자폐증세가 있는 또 다른 아이가 찾아왔을 때 내가 있던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를 받지 못했던 일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린다. 장애유아에 대한 관

심이 지금만치라도 되었더라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았으련만!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비로소 장애아동에게 사회적 관심이 돌러지고 있다. 영유아 보육지침에 장애아보육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보육지침에 의하면 장애아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97년 까지 장애아 전담 국고 보조 보육시설을 50개소 신증축하고, 100개소를 장애인 복지관, 특수학교 등에 부설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장애아 특수교사 확보등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소요 보육교사 70%의 인건비 보조, 농어촌 보육시설에 한하여 월 10만원의 차량운영비와 취사부 인건비 지원 및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의 수당 지급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날 마련된 자리도 그동안 꾸준히 장애 어린이 교육을 담당해온 대한사회복지개발원에서 장애 어린이가 장애상태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정상생활에 용이하게 적응하도록 재활, 치료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

강연의 1부는 책을 번역한 역자가 캐롤라이나 교육과정의 소개와 책 사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 2부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통합보육한 사례발표가 있었다. 강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캐롤라이나 교육과정>

역자는 장애유아를 위한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장애유아를 교육시키는 교사나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교수도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우선 외국에서 실효를 본 교육과정을 소개하게 되었다고 한다.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1, 2장에서는 장애유아를 위한 교육적 환경과 교육적 과정, 통합집단환경 구성이 어떤 원칙에 의해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각각의 장애증세와 그특징을 기술하고 그 하나하나마다 교사가 교실에서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요령들, 도움을 주는 전문가들 순으로 소개한다. 장애증세의 조기발견을 위해 보육교사들도 꼭 읽어 볼만한 내용이다. 4장에서는 캘리포니아 교육과정(CCPSN)의 사용법을 기술하고 있다. CCPSN 교육과정의 모든 항목에 대해 관찰, 평가 → 아동의 개별프로그램을 위한 교육과정 항목선택 → 개별교육 세우기 → 실행하기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부록에는 각종 표양식과, 교육과정의 각 영역별로 교육절차와 집단활동에서 어떻게 적용·실시하는가를 제시한다. 이 캘리포니아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보다도 25개의 세분화된 영역을 가지고 있어 장애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곡교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모형>

곡교어린이집은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아동을 영유아반의 일반아동과 함께 보육하거나 장애아동만으로 이루어진 별도의 소그룹을 운영한다. 소그룹의 경우, 부분통합(교사의 개

입없이 아이들끼리 만나는 것), 영역별 통합, 역통합(장애아동그룹에 일반아동이 들어가는 경우)을 실시함으로써 통합을 꾀한다. 통합반의 장애아동들은 일반교사외에도 그 반에 배치되는 특수교사 1인에 의해 개별적인 배려를 받는다. 장애아동들도 견학, 등산 등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부모협력 프로그램과 교사 훈련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초기에 통합보육에 대해 일반아동의 부모들이 편견을 가지고 꺼려했으나 어린이집 교육에 대한 신뢰가 쌓임으로써 이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한다.

<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의 장애아동 교육프로그램- 디딤돌교육원의 사례 >

디딤돌교육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과 같은 공간에 설치된 특수교육원이다. 넓은 의미에서 통합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앞서 말한 곡교어린이집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교육에 있어서 통합을 위한 사전적응력을 높인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독자적인 체계로 운영된다. 디딤돌교육원에서는 기존의 권위적인 특수교육기관과는 달리, 장애정도에 차등없이 신청순으로 아이들을 입소시킨다. 다만 교육원에서 교육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다른 기관이나 치료시설을 소개해 준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입소여부와 상관없이 상담과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가족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현재 조기 특수교육반, 학령기 통합지원반을 주 2-4회, 오전·오후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상통합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국민학교의 교육내용을 사전에 배우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감각훈련과 언어교정 훈련을 병행 실시하는 가운데 개인의 발달기록과 평가가 치밀하게 이루어진다.

장애전담시설을 확충하겠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아를 보육할 시설과 여건이 실제적인 요구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장애자녀를 둔 엄마들이 가정형편상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아이를 맡아주는 곳을 찾기로 여간해서 쉽지 않다.

장애전담시설 지정요건을 현재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공립위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통합보육의 좋은 취지를 살리고 장애유아와 그 부모들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할 때, 반 구성이 가능한 선에서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과 보육료 지원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민간보육시설 가운데에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장애유아를 1,2명씩 보육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런 시설에서 좀더 장애아보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장애아가 어린 시절부터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하게 살시다

-어린이평화학교 어린이건강교실-

어린이 바른 몸 세우기의 기초

- 20세기 마지막 아이를 위하여, 다가오는 세기의 어른을 위하여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

하나.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에서는 2번에 걸쳐서 어린 아이의 감기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아이들의 질병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절실한 요구를 저희 연구회에서 모르지 않음에도 이번에는 순서를 변경하여 좀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길보기에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모두 아이들의 몸을 아이 몸답게 바로 세우고자 하는 바램은 같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지대한 관심은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자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애초에 타고 난 몸의 자연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아이의 몸의 온전한 요구와 행로를 지킬 수 있는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질병에 연연해 하지 않고 좀더 깊이 들어가 탐구해보자는 것입니다. 아이의 몸 자체를 알고자 노력하는 속에서 우리는 아이를 알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겠지요.

이러한 우리들의 바램과 관심, 노력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과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이고, 이 지점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우리와 아이가 서로 배우고 돌보면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아이들, 20세기의 마지막 아이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낳고 자랄 때 땅과 하늘, 물과 공기, 산과 바다 등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파괴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들의 어린 몸의 자연성도 그만큼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환경은 다르지요. 우리가 '저 자연'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해도 '이 자연'인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의 몸은 우리가 하기 나름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깊이 고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른인 우리들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20세기의 현재의 환경이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 운명에 파

언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고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의 아이들을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불행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누구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자신있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

어른인 우리에게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돌봐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무를 경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는 것과 아프지 않게 키우고 싶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건강한 아이는 아프지 않는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는 여러저러한 이유로 종종 앓는 일이 많습니다. 아이의 병은 그 자체가 스스로 몸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몸의 요구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아이들의 아픔은 엄격하게는 아이들을 위한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교육과 단련의 기회이며, 우리는 그 기회를 함부로 빼앗거나 그 교육의 의미를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원래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이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 몸 스스로가 취하는 치료방식이며, 몸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교육의 과정입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는다면 아이는 결코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몸 스스로가 치료하는 행위가 병인데도 아이들이 아프면 아이 자신이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우리가 불안해지고 귀찮아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도 몸에서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몸을 모르고 있고, 몸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하는 많은 행위들이 우리들에게는 두려운 현상이 되는 것이지요. 병을 대하는 우리의 불안감과 편의주의를 먼저 깊이 반성하는 것과 아울러 몸 자체에 대한 우리의 신뢰 여부를 깊이 반성하는 것이 아이를 대하는 우리들에게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20세기 마지막의 아이들을 위해 어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은 아이인 기간동안은 어른의 전적인 보호와 협조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가 수 없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때는 20세기가 끝나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어른으로서 우리들은 다음 세기를 향해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이가 아이의 몸으로, 어른이 어른의 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들은 다음 세기를 설레임 속에서 준비해가는 게 아닐까요?

어린 아이의 질병에 대처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것, 배워야 할 것은 하려면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다 알았다 해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아이의 몸과 몸의 이상에 일일이 적용하는 것도 의외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그 이유를 다른 무엇보다도 매우 꼼꼼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는 습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이들의 속성이나 본성을 모르고서는 그 모든 일과 노력, 우리의 애뜻한 정성이 물거품이 되고, 더 나아가 아이들을 망치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이들을 알게 되면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토록 많은 지식이나 기구들, 시간, 노력 등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지요.

셋.

아이들이란 누구입니까?

작은 어른입니까? 약한 어른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른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어른이 되는 존재가 아이입니까? 아니 그에 앞서 우리들은 아이란 누구인가에 대해 스스로 치열한 질문을 해보았을까요? 우리 주변에 아이들을 위한 책이나 교육자료들이 인류가 존재한 이래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아이란 누구이다'라고 우리가 납득이 갈 만큼 설명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이를 위하여 이러저러한 것을 하면 좋다, 또는 해야 한다, 귀엽고 소중한 아이를 위하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선전문구는 현란하게 많지요. 그럼에도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어른과 구별되는 아이의 본성과 특성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너무도 당연히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일까요? 정작 우리들은 아이들에 대해 다 이해하고 알고 있을까요?

저희 한문건강교육연구원 산하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생활을 이루는 어느 분야를 돌아보아도 순전히 아이의 본성과 특성을 위하여 설계되고 만들어진 것은 참으로 보기가 드뭅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 태어날 때,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겉으로는 다 아이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은 어른들의 편의와 형편, 이익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편의와 형편 때문에 아이들의 온전한 요구가 무시되거나 소홀히 되었을 때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이고 치명적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됩니다.

다시 한번, 아이란 누구입니까?

아이는 아이입니다!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왜 같은 말을 반복해 보느냐 하면 아이는 어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고작해야 아주 작은 어른, 많은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약한 어른, 아무것도 모르는 어른 정도로 생각하는 오래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아이 그대로 보는 것과 작은, 아니면 약한 어른으로 보는 것과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이의 아이이고, 어른은 어른입니다. 아이의 몸의 요구와 행로가 있고, 어른의 몸의 요구와 행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바램과는 다르게 아이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에 아이의 본질과 특성을 이루는 법칙들이 저장되어 있지요. 그 법칙들은 우주 40억년의 진화의 결정체들이고, 아이의 몸은 그 법칙들에 따라서 차차로 변화해 가는 것이지요. 아이는 우주의 얼덩어리입니다. 어른은 우주의 얼이 자기의 체계를 세우고 확립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이의 몸의 요구와 행로는 어른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얼덩어리로 있는 아이 몸의 속성은 본대로, 들은대로, 먹는대로, 입는대로, 행동한대로 그것들이 교육의 내용이 되어서 몸을 지어지게 됩니다. 몸은 정직한 것이어서 단 하나도 빠뜨리는 일 없이 고스란히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을 시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행위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사상과 습관, 지식과 힘을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아이들의 몸은 아이의 살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투명하듯이 그대로입니다. 아이의 살의 특성처럼 아이를 향해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이 그대로 여과없이 몸에 각인되고 기억되는 것이지요.

넷.

현대의 우리들의 모든 생활여건은 아이를 고려한 어떤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풍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들이 TV를, 입식식탁을, 선풍기나 에어컨을, 수많은 인스턴트식품들을, 아이들을 위한 그 많은 책들과 장난감들을, 많은 약들과 영양제, 보약들을, 아기자기한 장식품들을, 예쁜 옷들과 신발, 모자들을 원하던가요? 모처럼 부모랑 오붓하게 지낼 수 있는 휴일이면 또 어떻습니까? 시끄러운 차소리에다 목이 콕콕 막히는 매연, 북적대는 사람들 속에서 정작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산다고 쇼평하느라 아이는 죽어나지 않나요?

태어난 의미와 목적을 되새기며 경건해야 할 백일날이나 생일날에 우리는 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만 콧물이 나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쓰디 쓴 약들과 아프다기 보다는 질려버릴 만큼 무서운 주사들을 아이들은 좋아하던가요? 제대로 말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상상조차 못하는 사이에 화이트 코트 신드롬(의사, 간호사의 하얀 가운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종의 정신현상)에 빠져드는 것은 어떤가요?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기온이 내려가도 우리는 어떻게요? 아이가 걸음마

를 하다가 조금만 넘어져도 어떻게요? 단 한발자욱이라도 땀발로 땅을 디디거나, 바닥에 떨어진 음식부스러기를 손으로 집으라치면 우리는 어떻게요? 가위나 연필같은 것을 가지고 이게 무엇인가 호기심을 보일라치면 어떻게요? 아직은 몸의 요구가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라서 아이의 이성능력이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너무도 자상하게 사물의 이치를 그렇게도 친절히 말투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나요? 밥 안먹는다고 우리는 쫓아 다니면서 아이를 절대군주 모시듯 시중을 들지는 않는가요? 소중한 우리 아이를 민주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아이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이를 종중해야 한다고 토론이 무엇인가도 모르는 아이에게 그것도 존대말로 대등한 입장에서 토의를 하지는 않나요? 아이가 한번 밖에라도 나갈려면 옷부터 양말, 모자 모두를 일일이 입혀주고 신겨주고 하지는 않는가요? 아이가 해야 할 간단한 정리정돈이나 심부름을 엄마나 할머니가 대신 다 해주지는 않는지요? 어른은 아이에게 존대말을, 아이는 어른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순결하기 짝이 없을 아이가 자기를 낳고 키우는 부모에게 마치도 하인을 다루듯 명령하고 억지를 쓰는 것을 그냥 놔두는 일은 없는가요? 조기교육의 선풍에 불안하여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게, 더구나 몸이 다른 절실한 요구(즉 강인한 체력과 민감한 감각들의 단련)가 있는데도 그런 것은 제쳐놓고 글씨를 배운다, 책을 읽어준다, 주변의 참새, 강아지, 병아리 같은 것보다 이 지구상에서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 공룡 따위를 보여준다고 법석을 떨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의 몸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열거한 것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이를 위한다고 하면서 가장 무심코 행하는 일상의 것들만 간추려 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의 일상을곰곰히 살펴보면 정작 아이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쫓아가고 있는데 불과합니다. 어른 위주로 키워지는 아이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해는 아이에게는 너무도 직접적이고 치명적입니다. 비록 아이는 숨쉬고 말하고는 있지만 본연의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둘러싼 이러한 생활환경 자체가 아이의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몸은 그 이상을 바로 잡으려고 끊임없이 병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세기를 이어갈 요즈음 아이들이 거의 매일이다 싶게 감기에다, 열, 소화불량 등등으로 골골거리지요. 아이의 몸은 너무도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의 거대한 원인을 그대로 놔둔채 우리가 아무리 의학지식에다, 이러저러한 요법을 안다고 그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의학지식도, 자연요법도 먼저 전제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한 의학도, 자연요법도, 교육도 모두 아이의 몸의 온전한 요구와 행로를 몸대로 지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이의 몸을 아이의 몸으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방식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는 무척 난감한 상태에 부딪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난감하고도 난감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한치의 우연도 용서하지 않는 일, 그러면서도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며, 그것은 아이를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른이고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 몸의 요구와 행로를 켜만한 노력과 정성으로는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이를 키우는 일, 사람을 만드는 일이 정말 어렵기만 하는 일일까요? 어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의 몸의 요구와 행로를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조건에 보다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히 말해 우리의 몸으로서, 또한 우리의 삶의 조건으로서 아이의 몸의 그 순결한 요구와 행로를 제대로 알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연 그대로의 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우리 자신의 몸과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몸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숨소리조차 죽여가면서 아니 숨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정성을 모아서 우리 자신의 몸의 요구와 행로의 소리를 듣고자 하고 아이들의 몸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결코 설부르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삶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우리의 눈이, 귀가, 코가, 피부가, 생각이 달라지면 그 다음엔 몸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참고될 것들이 저절로 따라오겠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성격들, 의미들, 전망들, 우리가 지금 먹고 있고, 마시고 있는 것들,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입고 신고 있는 것들, 우리의 몸을 누이고 자고 사는 집들 등등에 대해 먼저 고민해보고 몸의 요구에 부합한가를 고찰하는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도 그 온전한 행로를 잡아가는 것을 하다보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스승인 몸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몸은 우주 40억년의 역사의 결정체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나 지식도 60조에 가까운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 저장되어 있는 것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교육자도 몸이 스스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의사라 해도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병은 몸을 아는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병을 앓는 것을 통하여 가장 빠르게, 가장 정직하게 우리의 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을 통하여 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태어난 목적과 살아가는 조건과 방향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지요. 병을 온전하게 앓는 것을 통하여 우주로서의 몸을 바로 세우라는 직접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몸은 병이 났을 때 약이나 주사로 아픈 상태를 땀땀이라고 지시하는게 아닙니다. 병을 고친다는 말은 몸시도 교만한 말입니다. 누가 고칩니까? 그 누가 고칠 수 있는 것입니까? 병이 났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몸의 요구와 행로를 온전하게 받아안을 때 병은 스스로 낫는 것이지요. 한차례 병을 앓고나서 더욱 강인하고 건강미가 넘치는 몸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의 몸을 단련시키는 중요한 기회인 병을 너무 쉽게 단정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야 할 것은 아파야 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왔던 그 매혹적인 승리의 기쁨을 우리 아이들에게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도와 아이들 스스로 건강하게 몸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 땀땀은 20세기의 땀(末), 더더욱 땀땀을 다음 세기!

아이들은 미래의 우리들 자체입니다. 몸의 구체성으로 본다면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들이었다면 미래의 우리는 아이들입니다.

저희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에서는 이 어려운 세기의 땀에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하려는 어린이 교사 여러분들에게 소박한 존경심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우리들의 조건과 어려움, 고민들을 정직하게 나누는 속에서 우리들 자신과 아이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당혹스러운 이 긴 편지에 대해 여러분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좋은 나날들, 연구에 연구가 지속되는 보람찬 나날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편집자주 :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는 어린이평화학교 어린이건강교실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건강교과 실습을 전담하고 있는 자율학습 모임입니다. 어린이 몸의 요구와 행로, 어린이 몸의 구조와 특성, 어린이 식생활과 어린이 몸과의 관계,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한 어린이 건강 증진과 어린이 성인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는 한물것기건강요법-몸의학건강증진법에 입각해서 몸건강체조, 민간자연건강요법, 자연산 식이요법(自然産 食餌療法) 등을 어린이들 스스로가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할 곳은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81-28 / 전화 : (02) 882-4705, 팩스 : (02) 878-4624입니다.

좋은 그림책 4개

떡잔치

글 강인희 / 그림 정대영 / 보림출판사 / 6,200원 / 32쪽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인절미를 사세요. 인절미를 안 사려면 시루떡을 사세요.”

아이를 옆으로 눕혀서 입과 클레멘타인 음정에 맞춰 ‘떡 사세요’ 노래를 불러준다. 그림 등에 얹힌 아이는 떡이 되고 다른 친구들은 떡을 사려고 모여들게 된다. 떡을 사려고 모인 친구들은 한점씩 떼어내어 먹는 시늉을 하기도 하고, 돈을 내는 시늉도 한다.

이렇듯, 이 그림책은 먹을 거리인 떡을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좋아한다.

각장을 펼치면 화전이나, 송편, 시루떡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지의 고운 색깔이 어우러진 화면이 깨끗하고, 웃고 있는 인물들이 여유로와 보이게 한다. 거기에 그림책을 만든 정대영씨의 세밀함까지 엿볼 수 있는데, 종이를 접거나 구긴 표현 방법이 독특하다. 다만, 인물들의 생김이 단조롭고 비슷하여 표정에서 재미를 찾기가 어렵다.

이 책의 구성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 우리 조상들이 즐겨 드시던 떡에 대해 만드는 장면을 담아내고 있다. 즉 흰떡은 떡베로 치서 만든 떡이고, 화전은 지저서 먹는 떡이고, 송편은 빚는 떡이며, 시루떡은 찌는 떡인 것이다. 또한, 계절의 흐름에 따라 구성했기 때문에 각 계절에 따른 대표적인 새나 꽃, 나무, 과일 등을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

요즘 아이들은 온상에서 기른 수박, 참외를 겨울에도 볼 수 있고, 한 여름에도 귤을 보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과일들을 자주 혼동 한다고 한다. 꽃도 마찬가지로 언제 무슨 꽃이 피는지 화단이 없는 아이들은 알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에서 때에 따라 절로 나는 진달래, 수리취¹⁾, 국화를 이용한 선조들의 맛을 아이들과 함께 느껴보는 것은 의미하겠는가. 직접 해 먹는다면야 이루 알할 수 없이 좋겠지만, 지점토에 꽃잎을 이용해서 소꿉놀이를 한다 해도 즐겁지 않겠는가.

한가지 아쉬운 점은 여름절기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정보를 제공하려고 만든 그림책이라면 그 의도대로 절기와 그에 따른 떡과 의미를 좀더 자세히 다루었어야 했다. 단오날에 해먹었다는 수리취떡에서도 수리취를 접어 넣거나 사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1) 수리취=수리치 : <식> 국화과에 딸린 다년생풀. 산에 보통 나며 일 뒤편은 흰 털이 많이 나고 가을철에 핑. = 구고초(拘古草). 『국어대사전』 양주동 저, 삼오문화사, 1984, p450.

참고로, 각 절기에 만드는 떡의 뜻도 함께 실는다²⁾.

우리나라는 사철절기와 명절에 따라 떡의 종류가 다른데, 주로 절기에는 그때 많이 나오는 식품을 가지고 쌀가루에 기미하여 만들게 되며 매월 하는 떡은 그달에 있는 명절의 뜻을 가지고 만들어 신에게 바치거나 이웃과 친척간에 나누어 먹었다. 특히 절기에 만드는 떡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

- 1) 정초다례(正月初茶禮)에는 흰 떡가래를 만들어 떡국을 끓여 먹으므로 순수무구한 경건함을 뜻하였고 정월 보름에는 까마귀에게 보은하는 약식을 만들었다.
- 2) 2월 중화절(中和節)에는 상진이 노비에게 만들어 먹이며 새해 농사를 수고해달라고 대접한다.
- 3) 3월 삼짇날은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부쳐 먹고 집안의 우환을 없이 하고 소원성취를 비는 산제를 드렸다.
- 4) 4월 초파일은 석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어린 느티떡을 넣은 느티떡을 해 먹는다.
- 5) 5월단오에는 천중절이라 하여 단오차사를 지내고 영두차사라 하여 영두를 천신하기도 한다. 그외에 햇쑥으로 쑥버무리, 절편, 인절미를 만들어 쑥의 향취로 불을 느끼는 떡을 많이 하였다.
- 6) 6월 유두에는 떡을 만들어 눈에 나가 용신께 풍년을 축원하였다.
- 7) 7월 칠월 칠석에는 율버를 천신하고, 삼복에는 개찰떡, 밀설꾸, 주악 등을 만들었다. 백중절에는 망혼을 위하여 절에서 제를 올린다.
- 8) 8월 한가위는 햅쌀로 시루떡, 송편을 만들어 조상께 감사하며 제사를 지낸다.
- 9) 9월 9일 중양절(重陽節)에는 추석제사를 못잡수신 조상께 제사지내고 국화의 계절이라 국화전을 만든다.
- 10) 10월 상달에는 붉은 팔시루떡을 만들어 집안의 풍파가 없기를 기원하며, 또 무오일이라 하여 마굿간에서 말이 병이 없기를 빌기도 한다.
- 11) 동지달 동지날은 작은 설이라 하여 팔죽을 끓여 찹쌀 경단을 만들어 넣고 먹는다.
- 12) 설날 그림에는 온시루떡과 정화수를 떠놓고 고사를 지낸다. 또 흰떡을 가지고 색색으로 만들어 골무같이 빚어서 나누어 먹는다.

소개 : 이현경(세티어린이집, 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모임)



2) 『한국전통 식품의 과학적 고찰』 김산순저, 숙대출판부, 1985, p 336.

바깥놀이

수원 축산기술연구소

이주영 / 용기초기어린이집
'밖으로 나가놀자' 소모임

마음껏 뛰어놀아도 어느 누구 하나 혼내지 않는 곳!
사실 도회지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며 놀 수 있는 곳이 드물다. 기껏 봄이나 가을에 소풍삼아 고궁이나 유원지로 놀러 가보지만 막상 아이들이 밟고 싶은 잔디는 땅가진다는 이유로 구경만 하고 오기 일쑤이고 더러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아트막한 동산에 올라가도 모두가 뛰어놀기엔 평지가 좁다.
이번에 '밖으로 나가놀자'에서 소개하는 곳은 처음에 소개한대로 누구 하나 아이들에게 뛰어놀지 말라고 소리치지 않는 그런 곳이다. 바로 축산기술연구소인데 보기 드물게 넓은 풀밭과 자연의 냄새, 소똥 냄새도 맡아가며 신나게 뛰놀 수 있는 곳이다. 닭, 돼지, 소, 사슴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을 자라는 순서대로 지켜볼 수 있으며 봄에는 벚꽃나무가 울창해서 시기를 잘 이용하면 더욱 그럴싸한 분위기까지 맛보며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 · 원 · 육 · 산 · 기 · 술 · 연 · 구 · △

-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 연락처 / 전화 0331)292-4511~3(대)
- 관람료 / 무료
- 관람 신청방법 / 미리 전화를 하고 견학을 신청하여 시간 조정을 해야 함.
(감사라든지 자체 일정이 있는 경우는 접수를 안 받음)
- 교통편 / 수원 고색초등학교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20분
자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음.
- 주의점 / ① 동물의 생태를 실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전염병이 돌아 악을 전체적으로 놓기도 하여 금지구역이 정해져 있다. 이곳은 절대 아동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신경써야 한다.
② 소를 방목할 때는 주변 울타리에 전기가 통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교육방법 / 사슴, 소 등 동물이 있는 곳으로 다니면서 설명해주고 본관 1층에 전시실이 있어 그곳에서도 설명을 해줄 수 있다.
- 나들이평가 / 틀에 짜여진 견학코스라기 보다는 아이들에게 무한한 자유와 향취(?)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소들도 풀밭에 방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광경을 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라 생각되고, 대체로 항상 한산한 편이므로 아이들끼리 다니며 동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잡초들을 구별해가며 놀 수 있었다.
마침 벚꽃이 필 때여서 꽃눈을 맞아가며 노는 것도 즐거움의 하나였다.
하루종일 놀아도 지루하지 않은 곳이다.



와보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이래요!

편집부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그때마다 마냥 신나는 어린이날!
전국 곳곳에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놀이마당 풍년이였다.
올해 역시 지탁연에서는 다른 교육관련 단체들과 함께 어린이날 행사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를 진행했는데, 아이들의 들뜬 마음은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도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행사장인 서울교대로 들어서고...
1년 365일 매일같이 오늘이길 바라는 아이들과, 모처럼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선 부모들.

뛰어노느라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몸은 피곤하지만 얼굴엔 웃음이 가득.
벌써부터 내년 어린이날이 기다려지는 우리 아이들...



↑ '복讎의 친구들아, 너희도 어린이날이 있니?'
통일마당에서 복讎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는 아이들.



← 앓 들어가라.
엄마와 함께 하는 투호놀이는 즐거워.

모두 다 훨훨 나비처럼 날아라.
신나는 춤추는 시간. →



여기는 놀이마당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으로요!!

너희들이야 마냥 신나겠지만,
후유- 어른들은 피곤해!
우리 아이가 어디서 놀고 있을까? →



보육정책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에 대한 답변서

보건복지부

편집자주 : 본회와 전국민보련은 공동으로 '96년 보육사업지침을 분석하고, 정리된 우리의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지난 4월 15일 우편으로 보건복지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우리네 아이들' 5월호 참조).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본회와 전국민보련에 회신은 답변서를 원문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1. 문서번호 96-31('96.4.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회에서 제출한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보육사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전망을 제시

- 지역실정에 근거한 시설확충계획 수립

현재 보육사업 확충대책3개년('95.-'97.)계획에 의거 보육시설을 '97년까지 14,000여 개소를 설치하여 62만여명의 아동을 보육할 예정으로서 추후 보육수요 제조사 등을 통하여 동계획의 보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

- 국민연금기금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

용자사업자에 대한 선정은 보육목적, 보육수요, 신청자의 자격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담보능력은 단지 용자금상환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전제 조건임, 아울러 용자금의 타용도 사용시 즉시 회수조치 하고 있으며 향후 용자사업 추진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임.

- 자치단체별 재정능력을 고려한 예산의 차등지원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은 사업비의 20%를, 그외 자치단체는 60%를 지원하여 현재도 차등지원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 자립도를 감안, 더욱 세분화하여 국고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는 향후 검토 되어져야 할 사안임.

○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표준보육단가를 현실화하여 부모부담과 표준보육단가와와의 차액을 국가가 부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실제 소요예산 파악등의 실태조사가 있을 후 검토 되어져야 할 사안임.
- 교재교구비의 지원대상을 가정보육시설까지 확대 '97년 예산에 반영토록 재정경제원과 협의중
- 동일시설에 두자녀 입소시 보육료 경감혜택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으로써 추후 검토되어져야 할 대상 사업임. 다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별도의 지원은 가능하며 현재 일부지역에서 실시중.

○ 보육시설의 질적 내실화 방안

- 민간시설과 국공립시설 보육교사의 동일한 경력인정 재정형편상 추후검토 할 사안임, 참고로 현재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사기업체로 전직시에도 경력인정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임.
- 보육교사 관리체계 마련
보육정보센터에서 교사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1개소가 있으나 점차 15개 시·도에 1개소씩 확충설치할 계획임.
- 민간시설의 보육교사수당 국고지원
재정형편상 추후 검토할 사안임.
- 보육교사 보수교육 강화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승급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 강구중.
- 시설장의 자격 및 교육
추후 검토할 사안임.
- 다양한 유형의 보육프로그램
영아 및 장애아와 방과후 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중임.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처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장,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일본방문기

문명속의 차별-「아사카지구」를 방문하고

박정애 / 본회 조직선전부장, 편집부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실험적 모색과 전망을 찾고 있는 금호·행당지역 주민들!

이 가난한 동네의 주민지도자와 활동가들이 4월22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오사카 아사카 동화지구-일본의 차별정책으로 피차별자들이 부락을 형성하여 살고 있는 곳, 부락해방지구라고도 한다-를 다녀왔다.

이번 방문은 작년 아시아주거연대회의(ACHR)를 개최했던 일본에서의 회의에 참가했던 지역의 선배님이 아사카 부락해방운동을 알게 되면서 우리 지역과 교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아사카지구에 제안하였고 그쪽에서도 우리 지역의 경험을 들은 후 흔쾌히 받아들여 성사된 것이다. 약 6개월간의 준비와 준비상황을 수시로 양쪽에서 검토한 후 일정과 프로그램 등을 조정하였다.

4월 22일 이른 아침 일찍 우리 일행 18명은 누가 보아도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같지 않은 차림으로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하늘을 날아갔다. 남겨둔 가족과 일에 대한 부담으로 조금은 피곤하였지만 설렘과 기대로 가슴이 벅차있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내려 아사카지구로 가는 길가의 풍경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진 않았다. 목적지에-아사카지구 해방회관-도착한 우리는 이번 연수의 의의와 목적을 아사카지구 주민과 일본 ACHR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일정검토 후 곧바로 공중목욕탕에 갔다-일본은 목욕문화가 발달되었다고 하던데 정말이지 목욕 하나는 열심히들 한다. 그 래서인지 프로그램속에 매일 목욕시간이 배정되어 있어 재미있기도 했다.

다음날부터 우리는 바쁜 일정을 시작하였다.

일본에서 왜 부락이 형성 되었는지, 부락해방운동의 역사와 투쟁과정, 현재의 모습 그리고 과제 등에 대한 강의와 슬라이드 상영이 있었고 부락안에 있는 시설들을 견학하였다.

세계날에는 아타라는 다른 동화지구 방문을 하였고 그 다음날에는 세분야로 나뉘어져 고베 생협, 고베 노동자 생산공동작업장, 이쿠노지역 보육소 등으로 흩어졌다.



↑ 일본 ACHR, 가마가사끼 노동조합.

아사카 지구 사람들과의 회식장면.

단적으로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 연수 때 너무도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온 것만은 확실하다.

세계 제2경제대국, 문화의 선진국이라 지칭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차별을 정책적으로 펴고 있었다.

부락이 형성된 것은 약 3~400년 전에 민중저항투쟁을 막기 위해 신분제도를 만들었고 제일 아래에 천민(賤民)으로 '에타' 신분을 만든 것이 오늘날의 부락이 생긴 역사적 기원이라 한다. 그후 부락사람들은 엄격한 신분제도 속에서 차별을 받으면서도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메이지유신 후 법률·제도적으로 평민이 되었다. 하지만 천왕중심의 피라미드형 신분계층 구도하에서 여전히 이들은 차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차별-결혼의 차별, 교육의 차별, 구직의 차별, 민족의 차별 등-을 벗어나기 위해 이들은 그동안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여 정부의 부락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화 확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신분제도가 철폐 되었다고 하나 호적상으로 과거의 신분이 기록되어 있어 사회적인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더우기 최근에는 부락민의 복지·학교시설 등이 너무나 좋게 설치되어 있는데다 다른 지역과 구분·격리를 해서 고도의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고 부락인들은 주장한다.

현재의 고민은 부락의 생활조건이나 부대시설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니 차별에 대한 의식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차별철폐운동의 방안, 즉 주민운동을 현실에 맞게 전개하는 것이 과제라 한다.

우리 일행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이 가마가사끼를 말할 것이다.

그 곳의 모습은 가슴이 찡찡할 정도의 충격 그 자체였다.

각 현장에서 1박을 한 후 우리는 다시 이국땅에서의 감격스러운 상봉을 하고 오사카시의 일용노동자의 인력시장인 가마가사끼-여관의 거리, 노숙의 거리라고도 부른다-방문을 끝으로 6일간의 연수를 마치고 다음날 우리 일행은 아사카지구, 일본 ACHR의 아쉬운 환송을 받으며 우리의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왔다.

일본을 다녀온 사람은 '배울 것이 너무도 많다. 아니다 전혀 배울 것이 없는 나라다.'라고 말들을 하곤 한다. 나는 극

방문하기 전 인솔자는 여자들은 가운데, 남자들은 양 옆에서 걸으라고 주의를 줄 때까지 설마설마 했는데 노동조합장의 설명을 듣고 직접 목격한 노동자들의 모습은 처참하였다. 길거리에 담요 한장 감고 자고 있는 사람들, 술 마시며 주정하는 사람들,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걸으며 뭔가 소리소리 지르는 사람들, 쓰레기 하치장 같은 길거리, 다닥다닥 붙어있는 작은 여관들...

삼각공원이라는 공원에 들어갔을 때 코를 찌르던 오물냄새, 공원주의에서 도박을 하는 야꾸자들-이곳은 경찰과 야꾸자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아무렇게나 나뒹그라져 있는 사람들, 우리를 쳐다보는 수백명의 시선들이 예사롭지가 않아 우리 모두는 긴장하였다.

이곳의 용역들은 대부분 야꾸자들과 결탁이 되어 있어 야꾸자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중간 착취를 당한다고 한다. 공원 중간 중간에 설치되어있는 경찰의 감시 카메라. 이들은 야꾸자, 경찰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일본이라는 나라 경제대국이라는 일본땅에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2만여명 집단을 이루고 있다니, 아니 이 또한 차별정책의 일환으로 양성화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들이 없으면 일본경제가 마비된다고 하는데...

일본을 다녀온지 한달이 되어가는데도 그곳의 모습이 나의 뇌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분위기를 바꿔 즐거웠던 얘기도 해보자.

나는 일본연수중 7곳의 보육소를 방문하였다. 아사카의 보육소, 아타의 보육소 등 특히 아타의 보육소는 시설과 환경면에서 오사카 보육소 중 으뜸이라 한다. 교사대 아동의 비율도 투쟁의 성과로 매우 낮고, 병아시설이라 하여 방이 3곳이 있었는데 감기등 일반적인 질병이 걸렸을 때 격리하는 방, 이 아이가 전염성인가 아닌가 판명이 안 난 아이들을 격리하는 방, 전염병에 걸린 아이들을 격리하는 방으로 너무도 환상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김덕환선생님과 함께 방문한 '희망의 문' 보육소가 인상에 남는다. 운동장에서 걸음마하는 아이들부터 국민학생까지 함께 어울려 서로 도와주고 놀이를 이끌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이곳은 야간 보육, 방과 후 보육을 하는 곳으로 밤 9시경 다시 갔을 때에도 아이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자유로이 뛰놀고 있었다.

함께 간 친구는 '희망의 문' 보육소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말하기도 하였다. 6월에 있을 마지막 시설 연수에

↓ '희망의 문' 보육소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습



을 일본교사들도 소개받고 반가이 인사를 하였다.

일본연수의 후유증에 걸리기도 전에 일상생활에 돌아온 나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부락해방 운동의 실재를 보면서 우리 지역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보육소는 아이를 보호·교육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복지에 기여하려고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하려 하는 모습 속에 '보육시설의 상'을 시사할 수 있었다.

경제력과 복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경제를 외친다고 다가 아닌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최대한의 복지 정책을 펼치는 국가만이 선진국·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글을 마친다.

↓ 우리 일행과 일본측 주민들과의 기념촬영



통신이야기

자료정리 어떻게 하십니까?

강예란 / 본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집이나 보육시설에서 신문을 보고난 후 자료정리 어떻게 하니까?

바쁜 보육현장에서 신문기사 자료정리 하기가 쉽지 않지요? 경제적 여건상 필요한 신문, 잡지를 모두 구독할 수가 없는 것도 현실이구요. 근처 도서관이나 관련단체 자료실을 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은 멀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보육시설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에서부터 출발해 보세요. 같이 일하는 교사들의 집에서 보는 신문까지 합하면 굳이 도서관이 따로 필요 없겠지요. 같은 보육시설에서 동료교사들과 함께 신문기사 정보를 나누고 정리하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자료 분류항목을 정하고 화일에 스크랩 해두시면 어린이집 살림살이 곳곳을 풍부하게 채워 줄, 그리고 각 신문사의 기사들이 더 풍부해져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로 다시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의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의 '신문기사' 코너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소와 연구원들의 집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에서 자료를 얻습니다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의 통신상에서 kinds가 제공하는 1992년 1월 1일~3일전까지의 신문기사를 얻을 수도 있다). 보육정책, 보육시설, 아동, 여성으로 나누어 각 주제에 해당하는 기사를 (신문, 주간/월간지 포함) 가능한대로 모아 분류합니다. 스크랩할 때 년도/월/일/항목/신문명을 밝혀두고요. 그리고 상태가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사본으로 대체를 합니다. 다음으로, 정해진 디스켓에 주제별로 입력한 후 저장해두었다가 일주일이나 2주일 간격으로 금요일에 천리안이나 하이텔에 전송을 합니다. 전송후 자료처리하는 화일에 스크랩해두고 스크랩 자료의 목록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정리되고 보관된 자료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문기사에서 얻은 정보들을 자신의 실제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겠지요. 통신관리를 하다보면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의 '신문기사'코너에서 자료를 얻고 있는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자료보다는 묵은 자료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

아 아직은 학자나 학생, 전업주부, 신문사 기자 등으로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요. 연구소에 보관된 신문 스크랩자료들은 다시 연구원들의 연구주제에 맞게 분류가 필요하고,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의 각 코너에 들어갈 새로운 정보의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연구소에 있다보면 어린이집 상황이 신문기사 자료정리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구하는 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저희는 [어린이집·놀이방 정보]를 통신에 올려놓고 있는데... 거기 '구인/구직/자원봉사자'란에 들어오셔서 교사를 희망하는 선생님을 찾으세요."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컴퓨터가 없어서 통신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없어도 단말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대신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릴 때 양식이 있어요. 묻는 항목에 대답해주세요."

연일 신문지상에서는 "엄마들도 인터넷 배우세요" "아이들과 함께 PC통신 이용 음란정보 접근막는데 효과" "왕초보라도 겁 안 나, 주부 컴퓨터학습 열기-컴퓨터회사 무료 교육센터" "세계 수준으로 평가받는 색채학습용 시디롬-색깔을 갖고 싶어요"라는 기사들로 21세기의 가정과 학교의 정보화는 교사와 부모들의 '컴맹' '네트맹' 탈출부터라고 떠들썩하는데...

어서 빨리 열악한 보육의 현장에도 컴퓨터 사용의 '봄'이 일어 [어린이집·놀이방 정보]가 풍부해지고 보육의 정보화가 뿌리 내렸으면...

바로 '나로부터' 말입니다.

세상읽기

우리의 무관심이 부른 또 하나의 사건

편집부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는지도 모른다.

이미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이 사건을 더이상 거론하지 않고 있고 그저 관련있는 몇몇 단체에서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가정의 달이라고 많은 이들이 자식을 위해, 어버이를 위해, 스승을 위해 기쁨과 감사의 선물을 고르고 여기저기 즐거운 나들이를 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소외된 자들을 생각해보자는 의례적인 방송프로그램을 5월이면 접해야 했었다.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고아 등등... 이 세상에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잃고 사는 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기억에서 다시 되살리는 일을 매년 5월은 당연하다는 듯이 해오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올해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기 보다는 우리에게 잔인한 달로서 찾아왔다.

이사회 할머니의 이름 석자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한 사건은 또다시 우리의 가슴을 쳤다. 신문지상에서 가정폭력을 다룰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랬건만 우리의 기대는 부질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우리는 땀 흘린 가슴으로 그저 멍하게 옆에 누워 자는 이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얼마후 그 이야기도 한 사람의 서글픈 인생도 우리에게선 신문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소개되는 가쉽거리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5월 어버이날.

모두들 자식놈이 달아준 삐알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입가 가득 호뭇한 미소를 머금고 일부러라도 동네 골목 한바퀴 돌아볼 적에, 어느 노인네는 전날 아들놈이 달아준 카네이션을 달고 불쌍한 딸자식 구하기 위해, 북망산 가까운 자신의 인생이 안스러워 대신 감옥신세를 지겠다고 들어간 그 딸자식을 구하기 위해 새벽이 되기도 무섭게 끌려갔다.

때리는 이가 죄인이라고

누구는 여태껏 맞고 지낸 이가 못한 거라고

서로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연속극 이야기하듯 흥얼거린다.
살고 싶지 않다고
도망가고 싶다고
부모 자식 보기 부끄럽고 죄스럽다고
밤이면 밤마다 남몰래 눈물 흘리며 가슴 쥐어뜯었을 한 주부의 인생은,
딸자식과 늙은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위 앞에서
맞는 딸자식을 보자니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지
사위놈에게 맞고 살자니 차라리 눈 감는게 낫지
하루하루 아침을 새롭게 맞을 때마다 한숨으로 그 아침을 삼켜야 했던 한 할머니의 깊은 설움은

누가 대신할 수 있으며, 누가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까.

매번 가정구타와 얽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기저기서 가정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들 소리쳤다. 하지만 아직 달라진 것은 없다.

이미 여러차례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곳에서 관련단체의 인터뷰나 설문지, 각종 통계치를 통해 소개했듯이 소수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엔 많은 이웃이 눈물을 몰래 흘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그 눈물을 진정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망설이다 한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일이라고 유유히 돌아가고, 들중 한쪽이 맞고 상처입은 몸과 영혼은 어디서도 감싸주려 하지 않는다. 우리의 법, 우리의 사회는 그들과 마치 살짝 부딪치기만 해도 엄청난 전염병처럼 그들의 문제를 거론하려 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서로를 짓밟고 상처를 주어야지만 되는걸까?

자신의 목숨을 위해 칼을 들어야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더 생겨야지만 우리는 마음놓고 숨을 쉴 수 있는걸까?

어느새 우리 사회에선 이상하리만치 폭력이란 것이 넓고 깊게 퍼져버렸다.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빛을 차단하면, 우리를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서럽고 두려울 뿐이다.

연장 소식

인천지역의 풍물소모임 '초급 발표회 및 스승의 날 자축연'을 다녀와서

편집부

푸르른 5월 하고도 스승의 날이라 하는 15일날 인천지역에서 풍물초급 발표회와 스승의 날 자축연을 한다기에 인천행 전철에 몸을 실었다.

일주일 내내 하루종일 아이들을 보느라 여력이 없을텐데 그새 언제 연습을 하여 발표회까지 하는지... 스승의날 자축연(?), 아이들과 부모로부터 축하를 받는 것도 아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축한다? 자못 기대가 되었다.

약도를 가지고 찾은 인천 노동자 풍물공간 '더늠'에 들어서니 풍물가락에 어깨가 들썩 거려졌다. 공간안에 풍선도 붙어 달고 치장을 예쁘게 하고 우리웃으로 똑같이 입고 풍물을 연습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근사해 보였다.

선생님들과 손님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풍물소모임장인 햇살어린이집 고정미 선생님의 사회로 '바위처럼'을 합창하며 본행사를 시작하였다.

"소모임을 만든 후 어린이집에서 일과가 끝난 매주 수요일마다 이곳에서 모여 풍물연습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가락을 익히고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 국악을 가르칠 것인가 고민도 하고요. 가락은 어느 정도 익혔으니 발표를 하고 싶어서, 스승의 날을 맞아 서로가 보답아 주고 우리 스스로 축하하자는 의미로 발표회 및 자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할 땐 풍물을 약하게 쳐야 하는데 아직까진 익숙치 못해 잘 안되거든요. 같이 불러주세요."

땡땡땡기다 궁파 땡땡땡기다 궁파, 2채, 3채, 굿거리...

달빛 으스스한 한밤중에

깊은 산길 걸어가다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가...

모두 다 어깨 들썩들썩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갑히 대견하다란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에게 국악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계속되고 있는 터에 교사들이 직접 우리 가락을 익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후 생활교육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 국악이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하는 우리 교사들의 노력이 너무도 아름답게 보였다.

이어서 스승의 날 자축연!

인천의 책임교사분과장 이상미 선생님은 "스승의 날을 맞아 한편으로 기분이 너무 좋고 자축연을 인천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서 더더욱 기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라고 인사말을 밝혔다.

인천지역위의 소모임 소개가 끝난 후 내빈 소개, 각 어린이집 소개가 있고 나서 '공로상' 수상식이 있었다. 수상자는 인천지역위의 터줏대감이자 지탁연의 창립멤버인 이명숙 선생님!

"제가 너무 오래동안 했죠? 만 10년째인가, 올해 1996년이 가장 힘든 해인 것 같아요. 그동안도 힘들었지만 어린이집들이 재정난으로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곳도 있고... 상을 받게 되니 뜻스럽고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 마음 누가 이해 못하랴.

10년동안 인천을 지키며 보육교사의 귀감이 되어온 이명숙 선생님께 모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어 축하 떡케익을 가운데 놓고 교사, 전직교사, 자모, 자부들은 목소리 높여 스승의 노래를 불렀다.

교사의 편지 낭송시간, 편지를 쓰기로 한 교사가 도저히 눈물이 나서 쓸 수가 없었다 하여 편지는 낭송치 못하고 끈끈한 동료애와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노래로 '전화카드 한장'을 부르고 스승의 날 자축연을 마쳤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녁식사와 뒤풀이. 각 집에서 김밥, 사라다, 김치, 닭튀김을 준비해와 소박하지만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나야말로 만감이 교차하였다.

저토록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교사들, 끊임없이 학습하고 연구하는 모습과 서로를 격려하고 보답아주는 우리 교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 순수, 소박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인천지역위 선생님께 깊은 애정과 박수를 보낸다.

육아일기

승필이는 욕심꾸러기

박정애 / 본회 조직선전부장, 편집부

“애처럼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하루종일 놀고 먹고 자고, 또 놀고, 너무 너무 잘 놀아요.”

승필이 놀이방 수녀님의 말씀이다.

놀이방에 다닌지 두달이 넘으며 승필이는 세상을 참으로 즐겁게 살고 있다. 처음 한 달간 아침마다 떨어지지 않으려 울곤해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정확히 4월 들어서는 인사도 예쁘게 하고 손도 흔들곤 한다. 아이들은 다 적응하기 마련이라고 내가 어린 이집에 있을 때 엄마들에게 “걱정말고 속상해도 말아요. 아침에 조금 울다 금방 그치고 하루종일 잘 노니까요. 괜스리 엄마만 속상하게 만든다니까...” 이렇게 말하던 내가 당시 엄마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놀이방 수녀님께 충고도 듣는다.

여든 사람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승필이가 놀이방에서 잘 논다니 엄마인 나는 우리 승필이가 고맙고 마음도 놓이고 수녀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오늘은 아빠가 일찍 퇴근하여 저녁내내 책도 읽고 자동차도 가지고 재미나게 놀고 있다. 아빠 뒤를 줄줄 따라 다니며 해달라는 것이 많으니 아빠는 도망다니며 “이건 자식이 아니야.”

“그럼 뭐야?”

“웬수야 웬수. 승필아, 엄마하고 놀아.”

승필이를 나한테 떠민다. 그래도 승필이는 아빠가 좋은지 아빠에게 달려든다.

집안일을 마치고 아빠 옆에 등을 기대고 나란히 앉으니 “아야... 씨...”하며 승필이 뛰어오더니 우리 사이에 끼여든다.

“승필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으으... 승피일...” 자신을 가르킨다.

“승필아. 엄마 아빠가 좋아.” 아빠 배를 베고 누우니 “아야 가가...” 승필이 내 머리를 잡아 당긴다.

잠잘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베개와 타올을 들고 가운데로 들어온다. 우리는 모르는 척 등을 돌리지만 승필이 바르게 누우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아빠 배에 머리를 대고 누워 내 배 위에는 다리를 얹고 놀기 시작, 머리를 흔들고 다리를 찬다.

“승필아 그만해.”

“승필아 엄마 배 아파.”

“너 혼난다...”

우리는 험박도 했다, 애원도 했다 하다가도 껴르르 웃기도 한다.

그로부터 30여분. 우리 부부는 그렇게 밤까지 승필이에게 시달려야 했다.

승필이는 왜인지 엄마아빠가 다정한 꼴을 못본다. 왜일까? 엄마 아빠 각각 다 소유하고 싶어서인지 잘 모르겠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남녀간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데...

욕심 많은 승필이가 엄마아빠와 늘 함께 하고 싶어서라고 우리 부부는 생각하는데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아소별곡

도담도담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 하나 - 잠자리 잡으러 갑시다!

아이들 : 선생님! 우리 잠자리 잡으러 가요.

선생님 : 잠자리는 가을에 많아. 가을에 고추잠자리 잡으러 가자.

아이들 : 그러면 선생님. 수박잠자리도 잡고, 호박잠자리도 잡아요.

선생님 : 뭐냐고?

이야기 둘 - 커쥬어요!

초롱이반의 4살박이 진태는 도담이의 영풍이로 소문난 아이.

그런 진태가, 오늘은 심각한 얼굴로 고추(음낭)을 잡고 고개를 가웃가웃...

선생님 : (걱정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진태야! 왜 그러니? 고추가 아프니?

진 태 : (역시 심각해서) 아니요. 선생님. 근데요. 고추가 커져 버렸어요...

선생님 일동은 우하하하...

진태 담임선생님 : 대체나... 커지긴 커졌구나.

이야기 셋 - 어느 역사소설

5월 3주 수업중.

지리적으로 전남도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담도담은 5.18 16주기 행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아이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던 선생님은 5.18 민중항쟁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하기로 했다.

선생님 : 친구들아 5.18은 어찌구... 저찌구... 그랬단다.

아이들 : (간절한 목소리로 이런 신신당부를...) 선생님! 선생님은 죽으면 안돼요!!

이야기 넷 - 재미있는 신발

선생님 : 재은이 샌들 샀구나. 예쁘다.

재 은 : 제 신발은 구멍이 뚫뚫 뚫려서 개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선생님 : ...? 그러니? 재미있구나.

이야기 다섯 - 설마 이태는데도 들어올라...

선생님 : 농잇감 정리하자.

아이들 : (뭇들은 척...)

선생님 : 농잇감 정리해 하지 않으면 난장이 할아버지가 혼내주시려 뽕거야.

(동화 속에 나오는 난쟁이 할아버지를 말함)

선생님 : 난장이 할아버지는 날 수도 있어요. 날아서 창문으로 들어오시지!

아이들 : (얼른 가서 창문을 닫는다) 정리 잘 할거예요.

선생님 : ???!

우리들의 목소리

이 봄의 끝자락을 잡고

백혜영 / 다우리어린이집

지난주 후배의 결혼식에서 주례서신 분이 신랑, 신부와 하객에게 당부하기를 아이를 셋은 낳아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셨다. 피로연에서 몇몇 결혼한 지인들끼리 만난 자리의 화제는 또다시 아이 얘기였다. 남편들은 둘이나 셋은 낳아야 한다고 했고 부인들은 하나로도 족하다고 하는 주장이 묘하게 남녀로 갈라서게 되었다. 뒤집어보면 마치 남자들은 아이를 매우 사랑하는 인류애를 지닌 사람들인 것 같고 여자들은 아이 때문에 자신의 할 일과 자신의 인생이 포기될까 싶어 악착스럽게 방어하는 매우 이기적인 존재로 낙인찍힌 것 같은 느낌이였다.

현재 나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는 반드시 하나만 낳아야지 둘 낳으면 하늘이 쪼개진다는 식의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다녔다. 둘은 낳아야 한다고 하는 친구를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참 열심히도 활동을 하더니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싶어 실망스럽기도 했으니까.

아이를 낳고 난 후 나의 생각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하는 말들에 경도되어갔

다. 아이가 커서 형제가 없으면 외롭고, 대어섯살만 되면 둘이 놀기 때문에 부모가 잉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혼자일 때는 초등학교 다니도록 데리고 다녀야 한다는 등의 말들에...

그래서 둘을 낳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나 이 봄에 나의 그 결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워낙에 기관지가 안 좋은지 아이는 백일이 지나고 지금(10개월)까지 감기를 달고 있는데, 이번에는 40도를 오르내리는 열감기를 하더니 급기야 기관지염과 폐렴으로 각각 1주일씩 2주일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 링겔주사가 잘 꽂히질 않아 손등과 발등에 정맥이 있는 곳이면 다 찌르고, 아이는 거의 까무러칠 것 같았다. 소아과 인턴들이 돌아가며 해도 되질 않아 그 병원에서 가장 잘 놓기로 소문난 의사까지 초빙(?)까지 할 정도였다.

난 처음으로 울었다. 내가 왜 애를 낳아서 저 어린 것을 고생시키고 또 내 신세는 뭐란 말인가 하는 처참한 심정에서, 처음으로 내가 생식력과 종족보존의 기능을 갖고 태어난 여자라는 사실에 절망하기도 했다.

어린이집일은 아예 손을 놓고 있어서 교사를 고생하는 것 보기도 미안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무력감과 사람들에게 대한 죄책감은 항상 따라다니고.

교사들도 모두 몸이 힘든 상황인데 난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이 낳고 출산휴가 받고, 타의라 하더라도 아이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인생을 너무 짧게 보거나,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런건데 몇년 아이 기르는 시간동안 내 존재와 할 일을 잃어버릴 것 같은 조바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래도 지금 당장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이의 둘이 지나고 서서히 생각하기로 해야겠다.

당위는 아이 돌이고 현실은 아이 하나에도 켄켄 때는 나의 이 신세에 대해 이 봄의 끝자락에서 고심한다.

교사일기

김이남 / 개봉중학교내 유아방 교사

1996년 5월 ◇◇일 날씨.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

바깥놀이를 못하니 답답하기도 하다.

하지만 아이들은 신나게 재미있게 노는 모습이 귀엽기만 하다.

여자친구들은 밀가루 점토로 만들기도 하고 남자친구들은 볼력이 친구가 되어 폭 빠져 논다.

동화 '우리 아빠가 최고야'를 읽어 주었다.

곧바로 동극놀이로 꾸며 보기도 했다.

에은이는 파리가 들어온다고 창문을 달자고 하였다.

동호하고 진경이가 그만 쉬를 하고 말

았다.

바쁜 하루가 또 지나간다.

1996년 5월 △△일 날씨

에은이의 고함이 또 유아방을 놀라게 한다.

어떻게 해야 에은이 마음이 평온해질까? 고민이다.

오랫만에 나간 모래밭은 반갑기만 하다. 모종삽과 호미로 모래를 파기도 하고 덴발로 모래의 감촉을 느껴 보기도 한다. 진경이는 덴발로 놀기를 좋아한다.

기운없이 보이는 형석이 점심밥을 두 그릇이나 비웠는데 잠이 부족한 걸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자랐으면 좋겠다.

1996년 5월 ☆☆일 날씨

오전에는 순서대로 돌아가며 우물고누, 자전거고누를 했다. 고누놀이를 할 때는 차분해지고 생각을 하게 한다.

오후에는 악수터에 갔다. 신나서 야단이다.

맑은 공기, 푸른 하늘, 풀냄새, 호박꽃, 참새떼, 흑염소, 지지분한 고양이 등...

이것저것 볼거리가 많아도 자주 데려가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다.

보육계동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토론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교육분과는 6월 29일(토)오후 2시 정책토론회를 연다. 주제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2년 무엇이 달라졌나'

문의처 : 02)521-5364

언어치료 무료상담

강남언어치료연구소는 언어발달지체, 조음(발음)장애, 실어증, 말더듬 등의 언어장애로 고생하는 아동들을 위해 무료전화상담을 개설한다.

전화외에 팩스도 이용가능.

· 무료 전화상담시간

월-금 오전 9시30~11시

오후 2시-3시30

토 오후 2시-3시30

문의처 : 02)583-0461~2

팩 스 : 02)583-0462

여성신문교육문화원 방과후아동지도자 교육

일시 : 매주 수, 금요일

오후 1시30분~4시30분

회비 : 30만원

(4개월과정, 교재비 포함)

문의처 : 02)512-3301~3

어린이 예능교실 회원 모집

<미술교실>

대상 : 유치원생, 초등학교

교육내용 : 그림 그리기 기초, 만들기, 꾸미기

교육시간 : 월, 수, 금요일 14:30-17:00

교육비 : 월 25,000원

<동화구연교실>

대상 : 초등학교

교육내용 : 발음교정, 발표력 지도, 상상력 표현법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15:30-16:30

교육비 : 월 18,000원

<종이접기 교실>

대상 : 어린이와 일반성인

교육내용 : 손근육 운동을 통한 두뇌개발 작품 만들기 등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13:30-17:00

교육비 : 월 15,000원

문의 : 본동종합사회복지관

02)817-8052-4

전문상담실 프로그램

<심리검사 프로그램>

대상 : 만2세 이상의 어린이부터 일반 성인

검사내용 : 발달상태, 적성, 지능, 성격, 흥미, 습관 검사

검사비 : 10,000원 - 15,000원

<놀이치료 프로그램>

대상 : 주의산만, 정서불안, 대인관계의 어

려움, 언어장애, 학교 부적응의 만2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

검사비 : 15,000원

문의 : 본동종합사회복지관

02)817-8052~4

'96 대한민국 꽃 박람회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화훼협회는 5월 31(금)~6월9일(일)까지 10일 동안 한국종합전시장 야외전시장에서 '96 대한민국 꽃 박람회를 연다.

연락처 02)522-2727

평등의 전화

직장내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불평등 문제 해결 무료 상담

내용 : 임시직, 파견직 등 불안정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관련, 모집, 채용, 임금과 승진에서의 차별, 직장내 성희롱, 산재 등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하여...

상담시간 : 월-금 오전10시-오후6시

(이후 시간은 사전연락으로 가능)

문의전화 : 02)853-8354

성폭력 법률상담실시

도봉구 여성복지 상담실은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족문제나 성폭력문제, 가정법률 상담등을 실시한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 가정봉사원 연결사업도 실시한다.

문의 02)901-5545

가정봉사원 모집

자격 : 경로사상이 투철한 20세-60세 남녀
내용 : 병들고 홀로 되어 외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무의탁노인가정을 방문하여 말벗, 가사보조, 심부름, 병원수행 등을 도와드리는 일.

시간 : 주1회 2시간

문의 : 남부노인종합복지관

02)886-9234

무료법률상담

대상 : 가정불화, 주택 및 상가 임대차관계, 교통문제, 산재문제 등 모든 법률문제

상담자 : 김권호 변호사

방법 : 전화접수 후 내방상담

상담료 : 무료

시간 : 월-금 10:00-17:00

문의 : 상도종합사회복지관

02)824-6011~3

동부레기 봉사단 회원모집

자격 : 불우한 이웃들에게 포근한 관심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18세 이상의 남녀노소

방문지 : 보육원, 양노원, 장애인 시설 소년소녀 가장, 무연고노인

활동일 : 매주 일요일(월 1회 이상 참가)

하는 일 : 직접 방문, 빨래, 청소, 안마, 목욕, 학습지도, 대화, 음식대접, 옷, 반찬, 생필품 지원

문의 : 동부레기 봉사단 02)889-8916

△식과 △식

제 6회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놀이연구회 '놀이', 어린이 도서연구회,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소꿉놀이, 한겨레 문화센터와 함께 본회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5월 5일(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교대에서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역사마당, 생태교육마당, 신나는 놀이마당, 풍물마당, 통일마당, 노래·악기마당, 교육영화마당, 연극마당, 도서전시·원화마당, 유아마당, 사진·그림마당, 학부모마당, 이야기마당, 재미있는 실험마당, 장터마당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어린이 한마당이 남서어린이 한마당(양천공원), 북부어린이 한마당(노원구 마들 근린공원) 그리고 서울교대, 세 곳으로 분산개최되었다.

따라서 서울교대의 행사장에 참석한 인원수는 예년보다 적었지만 놀이에 참가한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었고 함께 온 가족들도 잔디밭과 그늘에서 여유있게 쉴 수 있었다.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엄마아빠 또는 선생님과 손에 손을 잡고 참가한 아이들은 하루종일 즐거운 표정이었고 어른들도 뜻있는 이날 행사에 만족스러워 하였다.

'96 춘계 영유아 보육세미나 '영아보

육 활성화방안' 개최

서울시 보육시설연합회(옛 '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는 1996년 5월 2일(목) 의료보험관리공단 대강당에서 '영아보육 활성화방안'이란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보육교사, 양성교육원생, 보육관련자, 학계,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영아보육 활성화방안'세미나는 최근 영아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영아보육시설로 변경·개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이에 대한 교육적 대안과 영아보육 정책의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운데 그 방안을 제시한다는 의미로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제1주제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2주제 영유아프로그램, 사례발표, 종합토론 및 폐회 순으로 주제발표 뒤에 토론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토론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질문으로 관계공무원을 난처하게도 하였다. 또한 국공립 교사와 민간 교사와의 임금의 차이를 해소키 위해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세미나 및 토론회가 계속 열려 영아보육이 활성화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제1회 서울시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주최 '보육교사의 밤'

서울시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는 5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간·가정보육시설의 원장, 교사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보육교사의 밤을 개최하였다.

식전행사로 피아노 4중주가 잔잔히 울리는 가운데 행사의 주인공인 교사들이 하나 둘씩 참석하자 정명옥 민보련 부회장의 사회로 본 행사는 시작되었다.

이날 박정혜 민보련 회장은 대회사에서 그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오신 교사 여러분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서울시연합회가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구청장 중 유일하게 김충한 강동구청장이 참석하여 모든 이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우수교사 수상 시간으로, 특별히 마련한 공로상은 71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노원구의 셋별 어린이집 원장이 선정되었으며, 각 구에서 선정된 우수교사 수상 및 상품수여가 있었다.

본행사를 마치고 식사와 함께 기념촬영도 한 후 교사장기 자랑 및 레크레이션과 촛불의식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제1회 서울시 민보련보육교사의 밤은 많은 교사들의 참여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자리였고 원장, 교사가 하나가 되어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특히 이날 수상한 교사중 본회 회원인 남부지역 세터어린이집의 최선희 선생님, 중부지역 개구장이어린이집 천인숙 선생님이 우수상을 받았고 북부지역의 동근나라어린이집 김선자 선생님이 영광의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김선자 선생님은 수상소감에서 "뒤편 말할 수 없이 기쁘다. 나를 있게 해준 지탁언과 동근나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자리와 기쁨을 전체 교사들과 나누지 못해 아쉽다."라고 밝혔다.

한국 영유아보육학회 '96 춘계학술대회 '한국 영유아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대안' 개최

한국 영유아보육학회는 5월 22일(수)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96 춘계학술대회 '한국 영유아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대안'을 개최하였다.

학술대회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원, 보육관련자, 공무원, 대학생(원), 양성교육원생 등 약 300여명이 참가한 속에서 진행되었다.

학술대회는 표갑수 학회장의 개회사, 김용배 보건복지부장과 한용의 삼성복지재단 전무의 치사가 있는 후, 제1부 단일연령 집단과 혼합연령 집단 간의 아동놀이 행동비교 연구, 일본의 엔젤플랜에 대한 도입배경과 기능 고찰,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부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프로그램의 특성 및 방향, 보육시설협의체의 운영문제와 조직과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에 나타난 문제점, 보육료 책정의 문제점과 합리적 방안을 논문발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로 관심을 나타냈고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함께 하려는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논문 중 다소 깊이가 없었던 내용이 있어서 아쉬움이 남기도 하였지만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 학술대회였다.

'96 지탁연 2차 교육강좌 성공리에 마저

'아동관찰과 교사의 연구일지를 통한 자기성찰'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2차 교육강좌가 강사의 열강과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치워졌다.

교육이론과 방법 그 자체를 소개하는 일반 교육강좌와 달리 이번 강좌에서는 이론과 방법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눈을 돌려, 그 속에서 관찰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사 윤선영씨(베를린대학 박사과정, 호서대 보육교사훈련원 강사)는 아이들을 직접 교육하는 교사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전문가라는 점을 역설하면서 교사가 연구자의 자세로 교육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교사가 일상적으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가운데 관찰의 범주와 목표, 방법을 구체화시키고 관찰의 결과들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사는 또한 체계적인 관찰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요소들을 교사의 연구일기 쓰기를 통해 보완할 것을 적극 권고하였

다. 연구일기가 오히려 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며 소개한 어느 독일 보육교사의 일기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는데, 그것을 통해 교육자로서의 진지한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지금의 유아교육이론과 방법, 프로그램들은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환기해 볼진대, 보다 선진적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보육수준이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보육교사들의 솔한 고뇌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보육의 역사가 아직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보육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노력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강좌를 계기로 교사들의 연구일기 쓰기가 현장에서 꼭 실천되기를 바라며 그날 모였던 분들이 바랬듯이, 차후에 강사님과 함께 서로의 연구일기를 공유하고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으면 한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부모일 꾸려

지난 5월 16일 첫 연구부모모임이 연구소 사무실에서 있었다.

연구부원으로는 서정은(보육정보연구소 소장), 유정은(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조인숙(그리스도신학대 보육교사교육원 강사), 이해영(동국대 가정학과 박사과정), 오선영(전남대 가정학과 박사과정, 인천여자신학대 보육교사교육원 강사) 이렇게 다섯분이 모였다.

이날 첫 모임에서는 '보육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료하게 하고, 확대된 시각으로 바라보자'로 모아졌다. 현재 연구의 흐름을 보육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보육은 '프로그램의 질'에만 국한된 서비스가 아니라 아동이 처한 가정과 사회의 총체적인 관계 속에서 풀려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앞으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두 달간 '방과후 보육'에 대해 연구하기로 하였다.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에 관한 학술대회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에 관한 학술대회가 5월 3일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1부에서는 '방과후 아동지도의 과제와 전망', '프랑스, 독일의 방과후 프로그램', '일본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관한 논문발표 후 '외국의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사례와 교훈' 토론이 있었고, 2부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 프로그램', '종합사회복지관과 보육기관에서의 방과후 프로그램' 논문발표와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모형'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관심 있는 분은 자료집을 구입해 보기 바란다.

♣ 사람들 ♣

* 출산하셨습니다.

안산 보육정보센터 박금희 선생님(전 안산 오손도손에기방 교사)이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아기가 조금 작지만 너무 예쁘다고 하는데 이른 아가 맑고 밝게 크길 기원하구요, 아울러 박금희 선생님의 밝고 건강한 모습 다시 뵙길 바랍니다.

* 결혼하셨습니다.

이계동무어린이집의 최문정 선생님이 6월 29일 향교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행복한 결혼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 출국하셨습니다.

광주 우리동네어린이집의 주경남 선생님이 3개월 과정으로 일본 장애아 보육소 연수를 다녀오십니다. 6월 중에 출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부디 건강한 몸으로 많이 배우고 오셨으면 합니다. 잘 다녀오시구요, 돌아와서 우리한테도 많이 알려주세요.

♣ 연합회 5월 활동일지 ♣

- 5/ 1 서울지역 교육단체 연석회의
- 5 '어린이 한마당' 어린이날 행사
- 6 서울경인지역 책임교사분과회의
- 여름연수 준비위원회 모임
- 집행회의
- 8 편집회의
- 9 지탁연 조직논의 소위
- 10 서울경인지역 평교사분과회의
- 13 사회복지학 소모임
- 집행회의
- 14 여연 조직위원회회의
- 16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 21 지방지역대표자회의
- 22 어린이날 행사 후속모임
- 23 지탁연 조직논의 소위
- 25 교육부 교육강좌
- 자활대표자회의
- 27 서울지역 교육단체 연석회의
- 확대집행회의
- 28 지방평교사분과회의
- 29 서울경인지역책임교사분과회의
- 30 여연 이사회
-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편집부에서

• 영국유학기는 쉽니다.

매달 우리에게 귀한 소식을 전해주는 정회원님의 영국유학기 「물설고 낯설은 타향에서」가 이번호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정회원님의 출국날짜가 다가오면서 제출할 논문의 초고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쁘시다는군요.

지난번 「우리네 아이들」 5월호에 정회원님이 사진을 못보내주셨던 점이 마음에 걸렸던지 미리 원고에 삽입할 사진은 보내주셨는데 잠시 후에 도착할거라는 원고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다음호에 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바라구요, 아울러서 다음호를 기대해주세요.

•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 구독: 오춘자, 안희영, 이명희, 이영화, 주혜남, 윤선영, 한경자, 조연이, 김용현, 김부경, 김봉식, 한해정, 민순영, 조은주, 김형진, 이정임님

6 개 월: 홍정숙, 이영복, 박창순님
의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두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게재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후에 연합회 사무실로 전화확인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특히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나 단체명으로 송금하실 때에는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여러분의 귀한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삶이 담겨져 있는 글이나 소재를 받습니다.

보내주신 원고가 채택된 경우 작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아끼시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내가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일한지도 벌써 4달째가 된다. 그동안 연구소에서 사무관리를 하고 자료정리를 하면서 보육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고 있다. 내가 연구소에서 하는 조그마한 작업들이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관심어린 조언과 애정을 바랄 뿐이다.

- 예향

바쁜 한달이었다.

원고 준 제 날짜에 들어오면 소원이 없겠다.

햇살도 좋고 분바람도 좋고, 소식지도 좋아하는데...

우리 회원들여, 우리 함께 만드는 소식지를 만들어 봅시다.

- 정애

이렇게 또 한달이 갔다.

생각해보면 어느 때고 말 편하게 보낸 적 없이 매번 걱정에 한숨에 휩쓸려다보면 하루를, 한 달을 보내버린 것 같아 서글프기도 하다.

- 미혜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외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알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3,000원 1년 구독 25,000원)

어린이집 · 놀이방의 상해, 화재보험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연구소(원) 설립

한국보육정보연구소
Korea Daycare Information Research

늘푸른대리점

보육시설전문대리점이 충실히 안내합니다.

- 보육시설이 위험을 발견하고 방지대책을 세워 재물손해·인명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보육시설이 가입해야 할 보험의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 각 시설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안전한 보육환경, 적절한 보험선대, 수익금의 보육사업재무자를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 보육사업 전문가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에 실속있는 도움을 드립니다.

아동사고!

5,775원으로 최고 1억 1천만원 보상에
작은사고에서 큰사고까지!

상담전화
TEL. 271-1547~8
FAX. 271-1548
BP. 015-943-3954

늘푸른대리점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를 PC통신으로 제공하고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보육시설의 보험가입과 상담서비스를 위해 개업했습니다.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비고	
원아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2,800원	1인당	5,775원	배상책임보험 학교 경영자, 목약요율의 6% 적용		
	의료실비 100만원						
배상책임손해 (1인당)	대인 1인당 1사고당 1억원	2,915원					
	대물 1사고당 1,000만원						
교직원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6,510원					
	의료실비 100만원						
재산손해	전물 및 설비비용 (보험가입금액 100만원당)	화재손해 기본보험료(화재요율 6% 적용)				화재보험 일반물건 최종 적용요율의 6% 적용 즉, (화재보험 일반물건 기본요율) ×(1±할인 할증요율)±6%	
			1급	2급	3급		4급
		1등지	6,230원	9,840원	15,225원		24,225원
		2등지	7,200원	12,485원	21,015원		31,215원
		3등지	9,020원	15,215원	24,235원		34,235원
		4등지	11,315원	34,020원	2,040원		44,660원

《늘푸른 대리점에서 추천하는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